

濟州道 地域農業의 構造變化와 發展方向에 關한 研究*

姜 志 勇** 姜 景 璿*** 康 承 鎮****

目 次

I. 序 論	5. 作目別 構成
II. 經濟發展과 農業	6. 食糧作物
1. 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一般의 見解	7. 特用作物
2. 1~5次 經濟開發計劃과 農業政策	8. 柑 橘
3. 韓國農業의 相對的 衰退	9. 園藝作物
4. 濟州道 地域農業의 相對的 衰退	1) 菜蔬園藝
III. 濟州道 地域農業의 構造的 變化	2) 花卉園藝
1. 農業人口	3) 施設園藝
2. 業態 및 形態別 農家戶數	IV. 要約 및 發展方向
3. 耕地面積	參考文獻
4. 耕地規模	

I. 序 論

우리나라는 1960年代初까지만 해도 農業人口가 總人口의 58.3%나 차지하고 農業生産이 GNP에 대한 比率이 36.5%나 차지하는 전형적인 農業國이었으나 1960년부터 1986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시작된 輸出優先의 工業化政策에 의하여 25年間 實質 GNP成長率이 年平均 8.4%라는 높은 高度成長을 이룩함으로써 전형적인 農業國에서 탈피하여 先進型 工業國으로 변모하면서 이에 따라 國民經濟規模가 괄목할 정도로 擴大되었으며 또한 產業構造의 高度化도 크게 이루어졌는데 반하여 濟州道는 다른 地域에 비해 地理的 및 工業的 諸搬與件이 불리함으로써 濟州道の 地域經濟는 農業과 觀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實情이며 지난 20年동안 濟州道地域經濟는 다른 地域과는 달리 1차산업인 農業과 3차산업인 觀光이 이끌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農業人口는 總人口의 約19.7%, GNP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比重은 12.7%에 불과하지만 濟州道の 경우는 道民全體人口의 約36%가 農業部門이고 柑橘 한作物의 粗輸入만해도 1000억원 以上을 올려 全體道民所得의 約20%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實情만 보더라도 濟州道の 地域經濟에서 農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이 論文은 1987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農科大學 農經濟學科 助敎授

*** 農科大學 農經濟學科 敎授

**** 農科大學 助教

濟州道 地域農業은 60年代初까지만 해도 田作을 中心으로 하는 食糧作物爲主의 自給的 農業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食糧作物爲主의 農業에서 所得이 높은 柑橘과 特用作物을 中心으로 하는 利潤追求의 商業的 農業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濟州道 地域農業이 濟州道 地理的 特性으로 인한 工業化의 조성여건에 불과한 반면에 濟州道 自然條件이 주는 利點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位置的으로 不利한 點을 상쇄해 나가고 濟州道만이 生産可能한 特定作物인 바나나, 柑橘, 파인애플, 화훼등을 生産함으로써 特定時期에 있어서 독점적 공급을 가능케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課程에서 濟州道 地域農業은 놀랄만한 成長을 이룩하여 濟州道의 農民들에게 많은 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이것이 濟州道의 地域經濟를 이끌어 왔었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서면서 柑橘은 量的 擴大와 이에 따른 諸般條件의 미흡으로 인하여 價格은 다른 과일등과의 실질가격에 비하여 계속 下落勢를 나타내어 柑橘산업은 沈滯하기 시작하였고 特用作物은 농산물 輸入自由化 政策에 의해서 값싼 外國產 農産物이 輸入됨으로 인하여 점차 斜陽化돼 가고 있는 實情이다.

濟州道 地域農業을 이끌어 왔던 두개의 큰 기둥인 柑橘과 特用作物의 衰退는 제주도 農家收支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農家の 戶當 負債가 최근에 급속히 증가해 가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하여 제주도 地域農業은 또 다른 전환기적인 樣相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柑橘의 主産地인 西歸浦를 中心으로 하는 남부지역에서는 바나나를 비롯한 고급 열대 및 아열대작물과 洋蘭 그리고 球根類의 花卉를 재배하는 시설원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施設園藝에는 많은 資本과 技術蓄積이 있어야만 발전이 가능하고 또한 어떤 아열대작물이 濟州道의 自然條件에 알맞고 바람직한지, 특히 바나나는 현재 收入이 開放되어 바나나재배 농가에 매우 불안한 상태여서 柑橘의 代替作物으로 기대 하기는 아직까지 안심하고 栽培를 확대시키기에는 불안한 감이 있다. 그리고 舊左邑, 涯月邑 등지에서는 特用作物대신 양배추, 당근, 파,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재배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농산물의 특성에 기인되고 價格이 暴騰과 暴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등 價格의인 면에서 安定이 안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80年代에 들어서면서 濟州道綜合開發計劃과 觀光開發政策 등으로 우리에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農業이 뒷전으로 밀려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開發政策들은 濟州道 農地의 地價를 昂騰시켜 損害를 보면서 농사를 지어온 생산의욕을 상실한 小農民들로 하여금 조상전래로 내려온 土地를 팔아 버리도록 誘因했고 교육 수준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러한 小農民들은 土地를 팔아서 얻은 돈을 非生産的인 곳에 投資를 하거나 혹은 이러 저리 굴리다가 몇 년 안가서 모두 잃어버려 賃金農業勞動者로 絶落하는 등 社會的 問題도 惹起시키고 있다.

앞으로 濟州道 地域經濟는 분명히 觀光과 서비스業이 이끌어 나가겠지만 觀光産業이 農業과 균형있게 성장하여야 만이 제주도 지역경제가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農業의 發展을 통하여 觀光産業을 成長시키고 觀光産業의 發展을 통하여 農業을 성장시키는 「以農業培養觀光, 以觀光發展農業」의 政策이 반드시 施行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않고서 차질 잘못하다가는 제주도 지역경제는 不均衡을 이루게 되어 觀光開發에 따른 利益이 진정으로 道民의 所得增大와 分配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相對的 貧困階層은 계속 增加하게 될 것이며 濟州道의 地域農業은 계속 쇠퇴해 갈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濟州道의 農業發展을 위하여 濟州道 地域農業의 構造變化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濟州道 地域農業의 發展을 爲한 몇가지 方案을 보고자 한다.

II. 經濟成長과 農業

1. 經濟成長에 있어서 農業의 一般的 見解

農業이 衰退産業이나 成長産業이나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다. 農業은 他産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쇠퇴 혹은 침체하여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농업도 타산업과 같은 資本을 투하하거나 혹은 科學技術이 종합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결코 타산업에 비해 낙후되는 산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근래에 와서 대두되고 있다.

1) 衰退産業으로 보는 見解

農業을 衰退産業으로 보는 견해는 그 歷史가 상당히 오래된다. 英國의 經濟學者 밀(Mill, J.S)은 그의 저서 『經濟學原理』에서 農業은 工業에 비해 收穫遞減의 法則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역설하였다. 工業 등 非農業部門에서는 오히려 收穫遞增이 되거나 比例收穫이 이루어지나 농업에서는 생산요소의 투입에 비해 수확이 체감한다는 것이다.

다음 브렌타노(Brentano, L)는 『農政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식물의 생산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植物生産에 필요한 어떠한 생산여건을 변화시켜 증대하는 동안 수확량은 점차 증가하기는 하나 어느 수준을 넘어 서면 그 수확이 체감한다는 법칙을 증명하였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수확체감의 법칙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런가 하면 農業生産物은 價格形成에 있어서도 공업제품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缺狀價格差(Schere) 理論이 대두되었다. 農産物의 價格은 장기적으로 미증하는 추세이나 工産物 價格은 그보다 빨리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양자간의 격차가 缺狀, 즉 가위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농업은 不等價交換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수탈당하고 豐饒속의 貧困을 초래하는 등 농가소득의 상대적 저위를 결과한다는 것이다.

決定的으로 農業의 相對的 衰退를 주장하고 이를 실증한 사람은 클라크(Clark, C)이다. 그는 『經濟進歩의 諸條件』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페티의 법칙(Petty's law)을 제기하였다. 그는 산업을 제1차·제2차·제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제1차산업은 농림업, 목축업, 수산업, 狩獵 등으로, 제2차산업은 제조공업, 건축, 토목, 광업, 가스 및 電業 등 자본설비 필요산업으로, 제3차산업은 상업, 금융업 등 재정, 유통산업, 여타 서비스산업 등으로 구별되고, 人口分布로 산업발전을 측정할 결과 산업의 발전이 제1차산업에서 제2차산업으로, 제2차산업에서 제3차산업으로 그 비중이 점차 이동한다고 하였다.

오자라(Ojala, E.M)도 『農業과 經濟進歩』에서 페티의 법칙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미국·영국·스웨덴에서 이를 실증하고 있다. 그는 영국에서는 絶對量마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농업의 절대적인 감소가 아니라 他産業에 대비하여 相對的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에서는 엥겔의 법칙(Engel's law)이 적용된다. 전체 家計費중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킹의 법칙(King's law)에서 보는 것처럼 自給 이상의 농산물은 가격이 급강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다음은 짐머만(Zimmerman, C.C)의 법칙¹⁾인데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일단 饑饉水準만 넘은 후 계속

註 1) 朴東昂, 『農業經濟』, 法文社, 1964, P.52.

그 소득이 증대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식량을 위한 지출부분이 증가한다. 그 이상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식량을 위한 支出部分은 증가한다. 그러나 총소득중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작아진다. 끝으로 소득이 그 이상 증가하면 식량을 위한 지출부분은 실제상 감소된다.

또한 볼트(Wold)의 法則도 있는데 가계의 실질소득의 증대에 따라 農産物의 需要는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需要가 強力的이며 強力性이 $+\infty$ 에서 1에 접근한다. 그 다음에는 所得強力性이 정상적이며 1이 된다. 그래서 약간 소득이 높은 수준으로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이 되고 強力性은 1에서 0으로 변한다. 다음 所得強力性이 0으로 변한다. 다음 所得強力性이 0으로 된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負의 強力性을 가지며 0에서 $-\infty$ 로 진행된다.

수요 측면에서 농업의 低位性을 크게 주장한 사람은 슐츠이다. 슐츠는 「인구 1인당 소득의 증가에 따르는 食糧農産物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고소득국가에서 보다는 저소득국가에서 더욱 현저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고레(Goreux, L.M)의 식량에 대한 수요의 所得強力性³⁾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 있다.

아시아 및 極東(일본 제외)	0.7
近東 및 아프리카(남아프리카 제외)	0.7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제외)	0.6
일 본	0.6
지중해연안 유럽	0.55
EEC諸國	0.5
기타 서유럽	0.2
북 미	0.16

그리고 산업별로는 1차산업보다 2차산업이, 2차산업보다 3차산업 제품이 需要에 대한 所得強力性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農業의 相對的 쇠퇴는 경제가 發展함에 따라 非農業部門의 성장률이 농업부문의 성장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면에서 본 農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면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업이 相對的으로 衰退하여 간다는 중요한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겠다.

1)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즉 所得이 많아짐에 따라 그 소득 가운데 식량을 위하여 지출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것은 農産物 수요의 所得強力性이 낮아진 데 기인되는 것이다.

2) 농업은 生産性이 낮고 농업 생산력의 개선이 느리다. 농업노동은 상대적으로 非移動的이고 농업의 경제조직은 상대적으로 非伸縮的이며 농업생산에는 일반적으로 收穫遞減의 法則이 작용하고 1인당 소득의 낮은 수준으로 농업부문의 資本蓄積은 부족하며 이와같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농업은 生産性의 향상이나 이의 개선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3) 농업은 交易條件에 있어서 언제나 불리한 입장을 면하기가 어렵다. 즉 농산물 가격은 限界生産費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농민전체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市場價格은 競爭價格에

註 2) T. W. Schultg. Transforming Traditional Agriculture, 1963,
李弼圭譯, 「農業近代化의 經濟理論」, 장문각, 1974. P 395.

註 3) L. M. Goveux, Income and food consumption, FAO, Monthly Bulletin of Agricultural Economic and Statistics, 9, No. 10, October, 1960.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므로 農民은 언제나 불리한 거래를 하기 마련이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농업은 相對적으로 衰退하여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농업의 상대적인 쇠퇴가 곧 經濟發展에 있어서 농업의 經濟的인 중요성이 경시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다만 산업구조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比重이 相對적으로 적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2) 成長産業으로 보는 見解

농업을 반드시 쇠퇴산업이라고 볼 수 만은 없고 다음과 같이 見解를 제시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農業에 收穫遞減의 法則에 적용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농업에서도 收穫遞增이 나타난다고 하는 견해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맞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長期平均費用曲線의 最低규모를 향해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둘째, 缺狀價格差에 대한 논의는 역으로 逆缺狀現象(逆缺狀價格差)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셋째, 폐타의 법칙에 대한 반대논의는 농업에도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타산업 못지 않게 產出量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農業人口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즉 농업이 쇠퇴하였기 때문에 農業人口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農業人口를 축출해 냈다는 것이다.

네째, 英鎊의 법칙에 관해서는 근래 선진제국의 國家常所得이 증대되니까 오히려 식품에 대한 지출이 더욱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자주 나오고 있다. 식품의 流通構造의 개선에 따라 마케팅 마진이 상승하고, 식품이 고급화 되어 감에 따라서 食品費支出의 비율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다섯째, 슐츠도 『經濟成長과 農業』의 서문에서 「농업은 인색할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다. 빈곤한 나라들은 급속한 공업화에 치중한 나머지 농업을 전통적인 저생산성으로부터 근대적인 豐饒狀態로 개조하는데 거의 매번 실패해 왔다. 기아를 완화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농업을 너무나 가깝게 보는 것이 된다. 왜냐 하면 농업은 經濟成長을 위해 그 이상의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는 농업을 근대화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액과 그 投資의 結果에 달려있다」고 기술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투자의 低位가 농업의 상대적 저위를 초래케 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가 고위로 나타난다면 농업도 高位産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최근 농업부문에서도 農業革命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타산업이 개발한 과학 기술문명이 농업에 직수입되어 종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력이나 產出量이 타산업보다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개선되기 때문에 農業生産力은 급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3) 綜合的인 見解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처한 입장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農業의 地位에 대하여 찬·반 양론을 요약 설명하였거나 또한 피상적으로 양자 택일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속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세계의 후진국들은 농업의 상대적 저위를 쉽게 받아들여 선진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오히려 선진국들은 제1차산업제품을 수출함으로써 國益을 제고시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서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국내외적으로 심한 역경을 겪었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고, 유럽 제국에서와 같이 農産만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여 각종 특혜를 주어 離農을 방지하고 있음도 참고해야겠다. 대만같은 나라도 철저하게 농업에 기반을 두고 2차, 3차산업을 육성하고 있음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급하게 농업을 衰退産業으로 판단하는데서 생기는 국가의 經濟政策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나라가 보유한 생산요소와 생산제력 그리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産業開發戰略은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2. 經濟開發計劃과 農業政策

우리나라의 經濟는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計劃期間동안 年平均 8.4%라는 높은 實質成長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國民經濟規模가 괄목할 정도로 擴大되었으며 또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도 크게 변화하여 그동안 만성적인 赤字를 면치 못하던 국제수지도 1986년을 고비로 黑字를 기록하였다.

同期間中에 産業構造는 1次産業인 農林漁業比重이 37.0%에서 12.8%로 크게 低下되었고 2次産業이 16.4%에서 30.1%로 그리고 3次産業은 46.6%에서 57.1%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經濟開發政策은 經濟規模의 量的擴大와 産業構造의 變化를 이룩하는 同時에 不均衡發展이라는 質的側面的 不作用도 적지 않게 派生되면서 農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 1次計劃期間(1962~1966년)

해방이후 50年代末까지 우리나라의 農業開發政策은 6.25직전에 단행된 農政改革과 戰後의 米穀增産 및 畜産振興이 거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農業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農業部門이 戰後經濟의 최대 과제였던 物價安定에 가장 큰 役割을 하였다. 즉 物價安定을 위해 穀價上昇이 억제되었을 뿐 아니라 대량의 剩餘農産物이 도입됨으로써 農産物低價政策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經濟政策方向이 成長優先으로 전환되었으며 農業政策도 經濟政策方向에 맞추어 食糧增産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農業開發政策은 5·16革命以後 1962년부터 시작된 1次經濟開發5個年計劃에서 비롯되었다.

1次計劃期間中 農業政策의 基本目標는 農業의 近代化, 農家所得의 增得 및 食糧增産을 통한 食糧自給體制의 確立이었다. 이 目標를 무난히 달성하기 위하여 耕地規模의 擴大, 農産物의 適正價格維持, 營農資金의 支援擴大, 農業團體育成 등을 重點施策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農業開發政策에 힘입어 計劃期間中 農林漁業은 年平均 5.6%의 높은 成長과 全體産業構造의 34.8%라는 構成比를 차지하였다.

2) 2次計劃期間(1977~1971년)

1次計劃에 이어 1967년부터 착수된 2次5個年計劃에서도 農業政策의 基本目標는 食糧增産에 의한 國民食生活의 安定 그리고 所得과 利潤을 目標로 한 農業發展으로 農家所得의 增大에 두어졌다. 이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段收提高와 耕地擴大를 통한 食糧增産, 主産地造成에 의한 工業原料生産과

經濟作物의 增産, 農民의 增産意慾고취와 生活安定을 위한 穀價支持 및 安定, 海外需要가 많은 農作物의 增産과 輸出擴大에 政策方向이 모아졌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計劃期間의 後半期인 1970년에 農産物增産, 價格 및 流通構造改善, 農家所得과 生活水準向上 등에 관한 農業基本法이 制定되었고 農業災害對策法, 農耕地造成法 등 增産을 유도하는 制度的 獎置가 마련되었다.

또한 計劃期間中 食糧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高米價政策과 二重麥價制度를 도입하였으며 農産物價格安定基金이 設置되어 農産物價格支持 및 安定에 기여하였다.

이에 힘입어 계획기간중에 農林漁業은 國民總生産에서 年平均 1.5%의 成長을 가져왔고 生産構造는 26.8%의 構成比를 보여주었다.

3) 3次計劃期間(1972~1976년)

高度成長期인 70年代에 들어와 所得과 人口가 增加되면서 食品消費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1973년의 세계곡물과동이후 食糧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이 제고됨에 따라 主穀의 安定된 확보가 중요한 課題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부터 시작된 3次5個年計劃에서는 食糧增産을 통한 主穀의 自給, 農家所得增大, 農業生産基盤擴充, 農業機械化 促進을 農業政策의 重點施策으로 설정하고 農村經濟의 革新的 開發을 적극 시도하였다.

計劃期間중에도 2次에 이어 食糧增産을 위한 高米價政策과 二重麥價制를 지속하는 한편 統一, 維新 등 多收性 新品種벼를 개발보급하였다. 그 결과 米麥生産을 시기적으로 증대되어 計劃期間의 마지막 연도인 1976년에는 쌀과 보리의 自給을 달성하였다.

한편 2次計劃期間末에 새마을가꾸기 實驗事業으로 시작된 農村새마을 運動은 1972년부터 環境改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73년이후에는 지붕改良, 農村電化 등 環境改善事業外에 協同生産, 새마을工場建設 등 生産所得事業도 추진함으로써 農家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計劃期間중에 農村人口인 減少의 대처하기 위하여 動力耕耘機를 중심으로 한 農業機械化가 착수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次計劃期間中 農村漁業은 年平均 6.1%의 고도성장을 실현함으로써 5次에 걸친 計劃期間中 가장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였고 산업구조의 구성비는 23.5%를 보여주었다.

4) 4次計劃期間(1977~1981년)

1977년부터 1人當國民所得이 1천 \$滯로 들어서면서 國民消費構造가 그 동안의 量的 增加에서 質的인 多樣化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통적인 쌀, 보리의 消費는 줄어들고 畜産物과 青果物의 消費가 늘어났다. 이와같은 食品消費構造變化와 함께 營農形態도 종래의 米麥爲主에서 經濟作物과 畜産物을 중심으로 한 商業農이 급격히 늘어나고 一部 菜蔬類의 需給不安定에 의한 價格勝落現象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農業與件속에서 1977년 시작된 4次5個年計劃의 農業開發政策은 農業部門을 國民經濟成長에 기여하는 能率的이고 生産的인 産業으로 成長시키고 農村生活水準을 量的, 質的으로 向上시키기 위하여 農業의 지속적 成長, 國民食糧供給의 安定, 農家所得의 增大, 그리고 農村生活環境改善에 그 基本目標을 두었다.

이 기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重點施策으로는 食糧生産의 增大와 安定基盤構築, 農業生産基盤擴充, 團地營農의 擴大와 營農機械化, 農産物의 價格體系確立과 流通構造改善, 農家所得增大,

農業試驗研究 및 指導事業強化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農業環境變化에 生産 및 價格體系 등이 제대로 定着되지 못함에 따라 穀物, 菜蔬중 많은 農産物이 需給上乘離現象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4次計劃期間中 農林漁業은 1980年의 異狀氣候에 의한 飢凶作 影響으로 0.6%의 마이너스 成長에 머물렀고 산업구조 구성비도 年차적으로 減소를 하여 15.8%를 나타냈다.

5) 5次計劃期間(1982~1986년)

우리나라의 農業은 60年代에서 70年代까지 4次에 걸친 開發政策에 힘입어 生産基盤의 擴充과 農産物의 增産이 크게 이루어졌으며 農民의 生活水準도 상당히 向上되었다.

그렇지만 영세한 營農規模와 生産性向上의 지연으로 增産과 所得增大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食品消費構造의 변화에 農産物의 生産 및 供給이 彈力的으로 對應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問題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農業與件下에서 1982년부터 시작된 5次5個年計劃의 農業政策은 基本目標을 主穀自給達成, 生産基盤擴充 및 農家所得源開發, 農村生活環境改善에 두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그 要求가 증대되고 있는 都農間的 均衡發展과 農家生活水準向上을 위하여 農村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公共投資를 擴大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1960~70年代에 비하면 農村의 生活便益施設이 크게 늘어나고 生活水準도 質的 向上을 가져왔다.

그러나 産業化의 빠른 진전과 함께 農業部門은 他部門과의 開發隔差가 나타나고 一部 所得作目을 중심으로 한 價格不安定 등으로 農業所得의 신장세가 둔화될 뿐 아니라 商業的 營農進展으로 農家の 外部資金借入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農村經濟의 어려움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計劃期間의 後半期부터 農地稅制改善 等 農村經濟活性化施策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5次計劃期間中 農林漁業部門은 3.7% 成長率을 보여주었고 産業構造는 12.8%의 構造比를 나타냈다<表1>

<表1> 1~5次經濟開發計劃의 經濟成長과 産業構造

區 分	單 位	1962	1次	2次	3次	4次	5次
國民總生産	80年價格, 億 \$	126.7	180.6	309	490	643	971
	(經營價格, 億 \$)	(23)	(37)	(94)	(287)	(662)	(940)
經濟成長率	不變價格, %	2.2	7.8	9.6	9.7	5.8	8.6
1次産業	%		5.6	1.5	6.1	-0.6	3.7
1人當國民總生産	80年價格, \$	395	613	941	1,367	1,669	2,344
	(經營價格, \$)	(87)	(125)	(285)	(800)	(1,719)	(2,268)
生産構造	經營GDP對地, %	100.0	100.0 ¹⁾	100.0 ²⁾	100.0 ³⁾	100.0 ⁴⁾	100.0
1次産業	〃	37.0	34.8	26.8	23.5	15.8	12.8
2次産業	〃	16.4	20.5	22.2	28.4	30.7	30.1
3次産業	〃	46.6	44.7	51.0	48.1	53.5	57.1

註: 1) 1961年 價格基準 2) 1965年 價格基準 3) 1970年 價格基準 4) 1975年 價格基準

資料: 農村水産部「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86.

3. 韓國農業의 相對的 衰退

1960년부터 1986년까지 25년동안 다섯차례에 걸친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에서 農業開發政策이 꾸준히 추진된 결과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後進國의 굴레를 벗어나 新興工業國으로 급성장했고 經濟構造나 國民生活面에서도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農林漁業의 成長率은 年平均 3.3의 꾸준한 成長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農業部門의 지속적인 成長은 耕地規模의 擴大·土地改良과 水利施設의 整備 등 農業生産基盤의 擴充과 統·播·雜新 등 多收性新品種의 開發普及·肥料·農藥·農機械 등 生産資材의 增設, 營農技術의 向上 등 農業經濟條件의 改善에 크게 힘입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國民經濟 全體로는 급속한 성장을 했지만 이에 비해 農業部門만은 그간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非農業部門에 비해서 相對的인 成長非率이 매우 낮다는 것은 <표2>에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5차에 걸친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을 수행함으로써 年平均 8.3%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非農林漁業部門만은 農林漁業部門보다 3배이상이나 성장을 한 年平均 10.4%의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表2> 國民總生産에 對한 生産別成長率(全國)

單位: %

區分 期間	平均成長率		
	國民總生産	農林漁業	非農林漁業
1962 ~ 66	7.8	5.6	9.6
1967 ~ 71	9.6	1.5	14.5
1972 ~ 76	9.7	6.1	10.9
1977 ~ 81	5.8	0.6	7.5
1981 ~ 86	8.6	3.7	9.5
1962 ~ 86平均	8.3	3.3	10.4

資料: 農林水産部「第6次5個年計劃 農林水産部間計劃」, 1986/

<표3>에서와 같이 산업별 경제활동인구를 산업별로 구분해보면 1963년 있어서 1차산업부문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63.2%였는데 1986년에 와서는 23.6%로 약 4%가 감소된 반면 2차산업부문에서는 같은 기간에 11.1%에서 25.9%로 증가되었고 또한 선진국의 지름길인 3차산업부문은 동기간 동안 25.7%에서 2배가 넘는 50.5%로 증가 하였다.

<表3>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全國)

單位: 千名, ()内는 %

區分 年度	15歲以上 人 口	經濟活動 人 口	就 業 者			非 經 濟 活動人口	經濟活動 參加率	就業率	
			計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1965	15,367	8,973	8,522	5,000(58.7)	1,124(13.2)	2,398(28.1)	6,403	(58.4)	(95.0)
1970	17,468	10,062	9,617	4,846(50.4)	1,377(14.3)	3,395(35.3)	7,406	(57.6)	(95.6)
1975	20,918	12,193	11,692	5,339(45.7)	2,235(19.1)	4,118(35.2)	8,725	(58.3)	(95.9)
1980	24,463	14,431	13,683	4,654(34.0)	3,079(22.5)	5,950(43.5)	10,032	(59.0)	(94.8)
1981	25,100	14,683	14,023	4,801(34.2)	2,983(44.5)	6,239(44.5)	10,471	(58.5)	(95.5)

區分 年度	15세以上 人 口	經濟活動 人 口	就 業 者			非 經 濟 活動人口	經濟活動 參 加 率	就 業 率	
			計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1982	25,638	5,032	14,379	4,612(32.1)	3,143(21.9)	6,624(46.0)	10,606	(58.6)	(95.7)
1983	26,212	15,118	14,505	4,314(29.7)	3,375(23.3)	6,814(47.0)	11,094	(57.7)	(95.9)
1984	26,861	14,997	14,429	3,914(27.1)	3,491(24.2)	7,024(48.7)	11,864	(55.8)	(96.2)
1985	27,553	15,592	14,970	3,733(24.9)	3,659(24.5)	7,578(50.6)	11,961	(56.6)	(96.0)
1986	28,225	16,116	15,505	3,662(23.6)	4,013(25.9)	7,830(50.5)	12,109	(57.1)	(96.2)
1987	28,955	16,873	16,354	3,580(21.9)	4,602(28.1)	8,172(50.0)	12,082	(96.9)	(96.9)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統計年報

〈表4〉全國産業別 經濟活動 人口

單位 { 就業者: 千名
構造比: %

區分 年度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合 計	
	就業者	構成比	就業者	構成比	就業者	構成比	就業者	構成比
1960	—	—	—	—	—	—	—	—
1965	5,000	58.7	1,124	13.2	2,398	28.1	8,522	100
1970	4,916	50.5	1,395	14.3	3,434	35.2	9,745	100
1975	5,425	45.9	2,265	19.1	4,140	35.0	1,830	100
1980	4,658	34.0	3,095	22.6	5,952	43.4	13,706	100
1981	4,806	34.2	2,996	21.3	6,247	44.5	14,048	100
1982	4,623	32.0	3,157	21.9	6,644	46.1	14,424	100
1983	4,314	29.7	3,383	33.3	6,818	47.0	14,515	100
1984	3,914	27.1	3,491	24.2	7,024	48.7	14,429	100
1985	3,733	24.9	3,659	24.4	7,548	50.7	14,970	100
1986	3,662	23.6	4,013	25.9	7,830	50.5	15,505	100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統計年報

非農林漁業部門의 성장률에 대한 農林漁業部門의 상대적인 低下로 인하여 國民總生産에 대한 그 構造比도 〈표5〉에서와 같이 1975년에는 總生産에 24.9%인 25040억원이었는데 年차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986년에는 12.7%인 106490億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6年末 農家人口는 8180千名으로서 '85年末 農家人口의 4%에 해당하는 341千名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農家人口比率도 '85年의 20.8%에서 '86년에는 19.7%로 낮아졌다(표6). 그리고 農家戶數도 '86年 현재 1906千戶로 '85年보다 2萬戶가 감소되었으며 戶當人口도 '85年의 4.42名에서 '86년에는 4.29名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85년까지 지난 10年사이에 農家人口가 每年 450千여명씩 줄어든 것에 비하면 '86年의 絶對人口減少는 鈍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推進期間인 80年代後半에는 5次計劃期間中에 다져진 安定成長基盤을

〈表5〉 産業別 國民總生産(全國)

單位: 億圓(經營價格)

區分 年度	總生産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1人當國民總生産		1人當國民所得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千圓	\$	千圓	\$
1960	2,467	100	910	36.9	486	19.7	1,071	43.4	—	—	—	—
1965	8,059	100	3,116	38.7	1,944	24.1	2,999	37.2	28	114	25	.101
1970	27,769	100	7,176	25.8	5,192	22.3	14,401	51.9	81	223	68	.187
1975	100,646	100	25,038	24.9	28,208	28.0	47,400	47.1	278	573	228	.472
1980	366,723	100	55,247	15.1	117,343	32.0	194,133	52.9	966	1,589	767	1.262
1981	451,262	100	74,423	16.5	144,481	32.0	232,358	51.5	1,171	1,719	926	1.359
1982	507,246	100	77,315	15.2	157,688	31.1	272,243	53.7	1,297	1,773	1,010	1.381
1983	589,858	100	82,926	14.1	181,748	30.8	325,184	55.1	1,485	1,914	1,144	1.473
1984	66,408.4	100	9,181.2	13.8	20,997.2	31.6	36,229.8	54.6	1,648	2,044	1,274	1.581
1985	72,849.8	100	10,158.0	14.0	22,383.3	30.7	40,308.5	55.3	1,782	2,047	1,384	1.590
1986	83,975.8	100	10,637.1	12.7	27,086.0	32.2	46,252.7	55.1	2,027	2,300	1,577	1.789

資料: 經濟企劃院

〈表6〉 産業別 國民總生産에 對한 人口構成比

區分 年度	國民總生産(10億圓)			人 口(千名)			就業人口(千名)		
	全産業	農林漁業	%	總人口	農家人口	%	全産業	農林漁業	%
1970	2,777	718	25.8	—	14,422	44.7	9,617	4,846	50.4
1975	10,065	2,504	24.9	35,281	13,244	37.5	11,692	5,339	45.7
1980	36,672	5,525	15.1	38,124	10,827	28.4	13,683	4,429	32.3
1981	45,126	7,442	16.5	38,723	9,999	25.8	14,023	4,556	32.5
1982	50,725	7,732	15.2	39,326	9,688	24.6	14,379	4,314	30.0
1983	58,986	8,293	14.1	39,929	9,475	23.7	14,505	4,044	26.7
1984	66,408	9,181	13.8	40,513	9,015	22.3	14,429	2,731	25.9
1985	72,850	10,158	13.9	41,055	8,521	20.8	14,970	3,554	23.7
1986	83,833	10,649	12.7	41,569	8,180	19.7	15,505	3,477	22.4

註: 經營價格

資料: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더욱 공고히 하여 2000年代 先進社會實現의 基盤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증대된 經濟力을 바탕으로 國民福祉를 증진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자는 「케치프레이」를 내걸고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7.3%로 설정을 하면서 〈表7〉에서와 같이 産業別로는 1차 3차산업부문은 72%의 成長은 계획하고 있어 1차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6次經濟社會發展計劃에도 3~4배가량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農業生産性은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그 伸張率이 낮은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經營規模가 작아데다가 技術水準이 낮은 노동력이 相對的으로 많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農業部門의 경제활동인구 1人當의 耕地面積은 1986年 현재 0.26ha에 불과하고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表7〉 産業別 國民總生産 構成比

單位 { 金額: 10億圓
構成比: %

年度	區分	國民總生産 計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87		88,119	10,808	12.3	28,498	32.3	48,813	55.4
1988		94,728	11,078	11.7	31,151	32.9	52,499	55.4
1989		101,359	11,355	11.2	33,994	33.5	56,010	55.3
1990		108,454	11,639	10.7	37,068	34.2	59,747	55.1
1991		116,046	11,930	10.3	40,408	34.8	63,708	54.9
1987~91 平均增加率		7.3	2.5		9.3		7.2	

註: 6次5個年計劃

資料: 經濟企劃院

1.12ha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가 된다. 농촌에 過剩勞動力이 있고 높은 人口壓力下에 있는 영세경영으로서 勞働生産性を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다 耕作을 위주로 하는 營農이 되고 있으므로 勞働需要에 계절성이 있고 농번기에는 不足되나 農閑期에는 과잉상태에 있다. 농업에 취업했을때의 所得이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過剩勞動力은 다른 산업에 流出되어야 하겠으나 개개 農家の 立場에서 보면 必要한 勞動力이라 생각되기 쉽고 農家の 低所得을 과잉노동력이 아닌 農業에 따르는 속성으로 생각하게 한다.

둘째, 資本의 不足과 주어진 資源의 活用에 있어서의 不充分을 생각할 수 있다. 영세경영이 되고 있는 농가로서는 收益性이 낮고 농업이 지니는 不安定性때문에 보다 合理的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을 蓄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資金이 축적되었다 해도 이는 子女教育費에 충당되고, 교육을 받은 가족은 非農業으로 流出되므로 농업부문에 축적된 자금이 農業외로 도피하는 결과가 된다. 농가로서 資金의 여유가 없어 영농에 필요한 생산자재를 필요한 時期에 필요한 수량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性を 낮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셋째, 농민의 生産技術 또는 知的 水準이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農民의 知識水準이 낮을 때 經濟의 發展에 따르는 農業經營의 發展을 위한 技術의 收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農民에 있어 기술수준 또는 知識水準이 낮다는 것은 농민으로 하여금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내째, 농업은 非農業部門과는 다르게 生物을 對象으로 하는 유기적 생산이기 때문에 農業生産을 市場事情에 맞추어 조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와같은 諸要因, 다시 말해서 勞動力의 과잉, 경영규모의 협소, 資本의 不足, 技術水準의 低位, 有機的 生産 등이라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니는 構造的 特質 때문에 發展되는 정도는 非農業에 비해 相對的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며 時間이 지난다 해도 자연히 改善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따라서 政府의 農業 部門支援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4. 濟州道地域農業의 相對的 衰退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은 2次産業인 제조업부문의 伸張과 3次産業인 社會間接資本의 擴充等 工業化에

의존하여 왔음에 반해 濟州道發展은 工業化가 아닌 1次産業인 農業部門의 成長과 觀光業의 發展에 힘입어 왔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農業部門은 特用作物과 柑橋 等の 斜陽化로 인하여 成長率이 다른 産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實情이다.

다음 <表8>에서와 같이 産業別 成長率에 있어서 1次産業인 農林漁業部門은 1962~1966年 동안 11.4%, 1967~1971年 동안 1.5%, 1972~1986年 동안 17.4% 1977~1981年 동안 22.2% 成長하여 지난 1962~1981年 동안 年平均 13.1%의 成長率을 나타냈지만 同期間동안 2次産業은 21.0%, 3次産業은 18.6%의 成長率을 나타내어 成長率에 있어서 農林漁業部門을 앞서고 있다.

<表8> 産業別 成長率 單位: %

區分 期間	1次	2次	3次	總GRP
1962~1966	11.4	4.2	11.7	10.8
1967~1971	1.5	15.0	14.9	7.3
1972~1976	17.4	12.0	11.0	14.1
1977~1981	22.2	52.6	36.7	30.2
1962~1981 平均的	13.1	21.0	18.6	15.6

農林水産部「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86.

1972~1976年の 第3次 經濟開發計劃中에는 1次産業의 17.4%나 成長하여 2次産業의 12.0%, 3次産業의 11.0% 보다 成長率이 앞섰으나 1977~1981年の 第4次 經濟開發期間中에는 1次産業의 成長率이 22.2%로, 2次産業의 52.6%, 3次産業의 36.9%의 成長率보다 뒤지고 있다.

濟州道の 産業構造에 대한 變化率을 <表9>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農·林·漁業部門의 成長率이 相

<表9> 産業構造 構成比(道内) 單位: %

區分 年度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1960	63.1	10.1	26.8
1965	64.7	7.4	27.9
1970	49.3	8.0	42.7
1975	49.8	7.7	42.5
1980	34.7	5.0	60.3
1981	34.9	5.3	59.8
1982	38.7	3.8	57.5
1983	32.1	3.7	64.2
1984	38.6	3.0	58.4
1985	42.0	3.4	54.6
1986	42.2	4.0	53.8
1986(전국)	12.7	32.2	55.1

資料: 濟州道廳 統計課

對的으로 낮아지는 것과 같이 1960년에는 1次産業인 農林漁業部門이 63.1%, 2次産業인 광공업부문이 10.1%, 3次産業인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이 26.8%로 나타나 濟州道産業構造에 있어서는 1次産業인 農林漁業部門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년차적으로 점점 그 비중이 감소하면서 1986년에는 1次産業이 42.2%, 2次産業이 4.0%, 3次産業이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1次産業에 비해 3次産業이 많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1次産業은 全國에 비해 약 2배~3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農林漁業部門에서도 農業은 1980년에 農林漁業部門의 産業構造比 34.7% 중에서도 31.5%를 차지했고 林業이 1.1%, 漁業이 2.0%를 각각 차지했으나 1986년에는 1次産業構造比 42.2% 중에서 農業部門은 35.3% 林業은 2.0%, 漁業은 4.9%를 차지함으로써 全國의 構造比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産業構造에 있어서 1次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就業人口도 1982년을 고비로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10>에서와 같이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를 살펴보면 1975년에는 全體就業者 193,925名 가운데 1次産業인 農林漁業部門이 149,471名인 81.3%를 차지하고 非農林漁業部門이 34,454名인 18.7%를 차지했으나 1982년을 고비로 해서 년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1986년에는 全體就業者 構成比가운데에 農林漁業部門은 58.2%, 非農林漁業部門가운데에서 3次産業중에 就業하는 人口는 1975년 15.9%에서 1986년에는 約 2배가 증가한 38.7%를 나타내 다른 産業에 비하여 年次的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表10〉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道内)

單位: 名, ()는 %

區分 年度	15세以上 人 口	經濟活動 人 口	就 業 者				非 經 濟 活動人口	經濟活動 參 加 率	就業率
			計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1975	250,962	184,274	183,925	149,471(81.3)	5,208(2.8)	29,246(15.9)	66,688	(73.4)	(99.8)
1976	256,861	182,028	180,186	143,415(79.4)	5,816(3.3)	30,955(17.3)	74,833	(70.9)	(99.0)
1977	265,303	180,940	179,895	145,565(80.9)	5,163(2.9)	29,167(16.2)	84,363	(68.2)	(99.4)
1978	267,970	177,050	176,607	138,300(78.3)	5,490(3.1)	32,817(18.6)	90,920	(66.1)	(99.7)
1979	274,548	180,510	180,128	139,860(77.6)	5,580(3.1)	34,688(19.3)	94,038	(65.7)	(99.8)
1980	300,600	188,415	188,028	128,952(68.6)	9,999(5.3)	49,077(26.1)	112,189	(62.7)	(99.8)
1981	289,278	189,999	187,371	134,460(71.8)	5,913(3.1)	46,998(25.1)	99,279	(65.7)	(98.6)
1982	309,280	178,880	175,054	88,216(50.4)	7,395(4.2)	79,443(45.4)	130,400	(57.8)	(97.9)
1983	318,019	193,962	190,387	114,455(60.1)	6,223(3.3)	69,709(36.6)	124,057	(61.0)	(98.2)
1984	326,589	189,442	185,133	112,303(60.7)	5,683(3.0)	67,147(36.3)	137,147	(58.0)	(97.7)
1985	333,484	193,791	190,214	114,392(60.1)	6,491(3.4)	69,331(36.5)	139,693	(58.1)	(98.2)
1986	347,453	202,480	199,143	116,002(58.2)	6,139(3.1)	77,002(38.7)	144,973	(58.3)	(98.3)

資料: 주민소득연보

觀光産業 등 3次産業이 크게 伸張을 했으나 濟州道民 1人當 GRD 全國水準은 1976년까지만 해도 경남, 경기, 충북 다음으로 4位였으나 그 후 柑橘과 特用作物 등 農業部門의 衰退로 인하여 濟州道民의 1人當 GRD 水準은 1981년에는 10位까지 처지에 되었다<表11>.

〈表11〉 1人當 GRD 全國水準比較

區分 年度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인천
1967	6위(124\$)	1	2	3	4	8	9	5	7	—	—	—
1969	4위(180\$)	1	6	3	7	8	9	5	2	—	—	—
1972	4위(254\$)	2	8	3	6	5	9	7	1	—	—	—
1976	4위(588\$)	2	8	3	5	9	7	6	1	—	—	—
1980	8위(1274\$)	3	5	6	9	10	7	4	1	2	—	—
1981	10위(1401\$)	4	6	9	11	12	8	5	2	3	3	1
1984	7위(1579\$)	5	8	9	11	12	10	4	2	3	6	1

資料: 주민소득연보(1967~1984년 서울제외, 1967~1979년 부산·대구·인천제외)

이렇게 濟州道地域經濟에서도 農業은 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점차 相對的으로 衰退해가고 있다.

III. 濟州道地域農業의 構造的 變化

第5次 經濟社會發展 五1個年計劃의 農林水産部門 計劃을 보면 「農産物生産性的의 向上과 農家所得 增大」를 韓國農業의 發展目標로 설정하고 農業構造改善을 위한 첫번째 政策方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農業構造⁴⁾란 價格과 技術이 農業이란 産業의 成果에 미치는 效果를 규정하는 基本的 틀 즉, 農業生産主體(單位)의 性格과 그 分布(構造) 및 主體間的 關係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的 社會的 諸關係에서 오는 經濟構造를 뜻하는 것으로서 農業에 있어서의 基本的 生産手段인 토지소유구조를 기점으로 한 經營構造로 集約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濟州道地域農業의 構造變化도 土地所有生産, 經營 그리고 所得의 여러가지 구조적 側面에서 綜合的으로 變化과정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실제 統計資料의 利用이 제한적인 관계로 몇가지 側面만을 對象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1. 農家人口

道內 總人口中 農家人口가 차지하는 比重을 〈表12〉에서 보면 1960년에 86.2%, 1965년에 90.0%, 1970년에 67.8%, 1975년에 62.0% 1980년에 44.4% 1986년에는 36.3%로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는데 1986년에도 非農業部門으로서의 人口移動이 계속되어 전년의 195,339名보다 4,895名이 감소한 180,444名으로 나타났다.

註 4) 李貞煥, 農業構造의 概念과 構造理論,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經濟 1984.12. P.29

〈表12〉 農家戸數

單位 { 人口: 名
農家數: 戸

年度	區分	總人口(A)	農家戸數	農家人口(B)	道内總人口에 對한 農家人口比率(B/A)	家口當農家人口
1960		268,823	49,723	231,617	86.2	4.7
1965		326,405	58,457	261,064	80.0	4.5
1970		365,522	55,558	248,000	67.8	4.5
1975		412,021	55,736	254,839	62.0	4.6
1980		462,755	53,227	243,260	53.0	4.6
1981		467,876	47,380	207,710	44.4	4.4
1982		473,967	46,260	202,680	42.8	4.4
1983		477,861	45,330	196,530	41.1	4.3
1984		482,031	44,790	192,750	40.0	4.3
1985		489,464	42,278	185,339	38.0	4.4
1986		495,968	42,217	180,444	36.3	4.3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1986年의 총인구중 농가인구의 비중은 36.3%로서 전년의 38.0%보다 1.7%포인트가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농가인구비율의 감소는 전체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농가호수도 1973년 57,909가구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42,217가구로 1973년에 비해 約 15,690가구나 감소하였고 가구당 농가인구도 1960년 4.7명에서 1986년에는 4.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을 다시 年齡別 農家人口構造別로 年少人口(14세미만), 生産年齡人口(15~60세) 및 노년人口(60세이상)로 나누어 보면 〈표13〉에서와 같이 1986년 현재 전체농가인구중 年少人口(14세미만)의 구성비는

〈表13〉 年齡別 農家人口

單位: 名, ()内는 %

區分	計	男	女	13세以下	14~19세	20~49세	50~59세	60세以下
1970	271,903	127,142	144,761	104,688(38.5)	31,441(11.6)	88,968(32.7)	22,430(8.2)	24,376(9.0)
1975	246,559	117,201	129,358	87,112(35.4)	29,391(11.9)	80,543(32.7)	17,357(7.0)	22,156(9.0)
1980	243,260	16,991	126,269	—	—	—	—	—
1981	207,710	98,520	109,190	64,180(17.2)	35,730(17.2)	69,180(38.3)	17,490(8.4)	20,500(9.9)
1982	202,680	96,160	108,520	61,140(30.2)	34,680(17.1)	67,940(33.5)	18,490(9.1)	20,430(1.1)
1983	196,530	93,200	103,270	55,520(28.3)	34,920(17.8)	66,450(33.8)	19,150(9.7)	20,490(10.4)
1984	192,750	91,110	101,640	52,390(27.2)	34,480(17.9)	64,610(33.5)	20,320(10.5)	20,950(10.9)
1985	185,339	89,749	95,590	48,656(26.3)	34,616(18.7)	63,284(34.1)	20,400(11.0)	18,383(9.9)
1986	180,444	87,406	93,083	44,178(24.5)	33,997(18.8)	6,200(34.4)	21,179(11.7)	19,089(10.6)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24.5%인 44,178명으로 전년보다 4,478명이 줄어들었고, 생산년령별인구(15~60세)의 구성비는 64.9%, 이것을 다시 年領別 農家人口 構造別로 해서 13세이하인 年少人口層, 14~59세로 구성된 生産年齡인구인 靑壯年人口層, 그리고 60세 以上인 노년인구층으로 나누어보면 <표14>에서와 같이 1986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중 年少層九層(13세이하)의 구성비는 24.5%인 44,178명으로 전년보다 4,478명이 줄어들었고 生産年齡人口層(14이상~59세 이하)의 구성비는 64.9%인 117,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123명, 구성비는 1.1%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13세 이하인 年少人口層에 비하여 生産年齡人口層의 減少率이 적기는 하나 이들이 실제적으로 영농을 담당하는 계층이란 점을 감안할때 同年齡層의 減少는 農村勞動力不足을 가져오는 하나의 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60세 以上인 노년인구층은 작년보다 706명이 늘어난 구성비에서도 0.7%가 증가하였다.

<表14> 全國年齡別 農家人口

單位:千名, ()內는 %

區分 年度	總人口(A)	農 家 人 口						B/A
		計(B)	13세이하	14~19	20~49	50~59	60	
1981	38,423	9,999	2,937(29.4)	1,534(15.3)	3,299(3.3)	1,077(10.8)	1,147(11.5)	(26.0)
1982	39,326	9,688	2,758(28.5)	1,477(15.2)	3,023(31.1)	1,086(11.2)	1,164(12.0)	(24.6)
1983	39,929	9,475	2,570(27.2)	1,445(15.3)	3,148(33.2)	1,110(11.7)	1,198(12.6)	(23.7)
1984	40,513	9,051	2,338(26.0)	1,377(15.3)	2,961(32.8)	1,127(12.5)	1,212(13.4)	(22.3)
1985	41,055	8,552	2,114(24.8)	1,271(14.9)	2,830(33.2)	1,129(13.1)	1,197(14.0)	(20.8)
1986	41,569	8,180	1,918(23.4)	1,231(15.0)	2,682(32.9)	1,148(14.0)	1,200(14.7)	(19.7)

資料: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한편 우리나라의 농가인구의 年少人口層(13세이하), 生産年齡人口層(14세~59세) 및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1986년 현재 각각 23.4%, 61.9% 및 14.7%로써 제주도 농가인구와 비교해 보면 年少人口層의 構成比는 濟州道가 1.1「포인트」가 높고 生産年齡人口層의 構成比는 3.0「포인트」가 높으며, 노년인구의 構成比는 4.1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 처럼 제주도 농가인구에서 생산년령인구층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986년 현재 농가인구 180,444명 중 남자농가인구는 87,406명 여자인구는 93,08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63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제주도 총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중 농업인구의 비율 19.7%보다는 매우 높아 아직도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業態 및 形態別 農家戶數

1960년에서 1979년까지 조사된 업태별 농가호수를 <표15>에서 보면 1960년도의 田作農家は 전체 농가호수 49,723가구의 98.4%나 차지하는 48,950가구 였으나 1965년에는 57,053가구로써 전작농가의 수는 증가했으나 전체농가호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97.6%로 약 0.8%감소하다가 1965년 이후부터는 전작농가의 가구도 계속 감소하여 1979년에는 38,860가구인 73.1%로 1960년과 1965년에 비해 35.3%,

〈表15〉業態別 農家戸數

單位：千가구

年度	合計		畜 産		田 圃		果 樹		菜 蔬		特用作物		畜 産		양 잠		其 他	
	農家數	%	農家數	%	農家數	%	農家數	%	農家數	%	農家數	%	農家數	%	農家數	%	農家數	%
1960	49,723	100	453	0.9	48,950	98.4	44	0.0	54	0.0	19	0.0	91	0.0	—	—	112	0.2
1965	58,427	100	1,098	1.9	57,053	97.6	116	0.2	79	0.0	41	0.0	40	0.0	—	—	—	—
1970	57,266	100	725	1.3	52,061	90.9	1,816	3.2	317	0.6	468	0.8	150	0.3	131	0.2	1,598	2.8
1975	55,736	100	510	0.9	42,330	75.9	8,030	14.4	260	0.5	870	1.6	186	0.3	30	0.1	3,520	6.3
1979	53,162	100	230	0.4	38,600	73.1	10,450	19.7	370	0.7	350	0.7	262	0.5	—	—	2,640	0.5
1980	53,227	—	—	—	—	—	—	—	—	—	—	—	—	—	—	—	—	—
1985	42,278	—	—	—	—	—	—	—	—	—	—	—	—	—	—	—	—	—
1986	42,217	—	—	—	—	—	—	—	—	—	—	—	—	—	—	—	—	—

資料：濟州道 統計年報

24.5%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러나 과수농가는 1960년도의 44가구에서 1979년에는 10,450가구로 늘어났으며 구성비도 0.0%에서 19.7%나 차지한 것과 같이 감귤재배 농가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특용작물농가는 1960년에서부터 1976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1976년에는 1,460가구로써 전체농가호수의 2.7%를 차지했으나 그후부터는 감소하여 1979년에는 350농가로써 전체농가호수에서 불과 0.7%밖에 안되고 있다. 그리고 채소농가는 1960년에 54가구였다가 1979년에는 370가구로 구성비도 0.0%에서 0.7%로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農家戸數를 形態別로 나누어 보면 〈표16〉에서와 같이 農家數를 全業 1種兼業, 2種兼業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1975년도 55,736家口 가운데 全業이 44,015家口로 約 79.0%, 1種兼業이 7,086家口로 12.7%, 2種兼業이 4,635家口로 8.3%를 차지했으나, 1986년에는 總農家口中에 全業이 27,669家口로 65.5%, 1種兼業이 7,097家口로 16.7%, 2種兼業이 7,469家口로 17.8%로 나타나 年次的으로 全業農家は 계속감소하는 반면 2種兼業農家は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表16〉形態別 農家戸數

年度	區分	농 가 구 수 (가구)				농 가 인 구 (명)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1975		55,736	44,051	7,089	4,635	254,839	192,887	38,063	23,889
1980		53,227	—	—	—	243,260	—	—	—
1981		47,380	35,660	6,450	5,270	207,710	145,110	35,620	26,980
1982		46,260	32,270	7,310	6,680	202,680	130,660	38,570	33,450
1983		45,330	30,870	7,190	7,270	196,530	122,820	37,430	36,280
1984		44,790	30,140	7,590	7,060	192,750	119,640	38,260	34,850
1985		42,270	27,888	7,138	7,252	185,339	112,441	36,619	36,279
1986		42,217	27,669	7,079	7,469	180,444	108,603	35,298	36,543

資料：濟州道 統計年報

3. 耕地面積

濟州道の 耕地面積을 살펴보면 <표17>에서와 같이 1960년에는 43,176ha였으나 그후 조금씩 증가하여 1980년에는 50,117ha로 6,941ha나 증가했으나 1981년부터 경지면적은 감소하나 198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 현재 54,365ha에 이르고 있다. 家口當 경지면적은 1960년 0.872ha에서 1980年 0.939ha에서 1986년에는 1.288ha로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1ha정도의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 農家人口當 耕地面積 1.12ha보다는 다소 넓은 耕地面積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表17> 耕地面積

單位 : ha

年度	區分	耕 地 面 積			家口當 耕地面積
		計	畜	田	
1960		43,176.2	1,058.9	42,117.2	0.872
1965		48,222.1	1,050.0	47,172.1	0.825
1970		35,809.9	796.1	35,013.8	0.645
1975		49,918.6	1,062.4	48,856.2	0.913
1980		50,116.9	1,003.7	49,113.2	0.939
1981		50,064	204	48,860	0.058
1982		49,924	1,164	48,760	0.057
1983		49,743	1,075	48,668	1.079
1984		49,553	1,071	48,482	1.106
1985		51,028	1,038	49,990	1.207
1986		54,385	1,004	53,361	1.288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4. 耕作規模

耕作規模別로 보먼은 <표18>에서 처럼 1960년에는 0.5ha미만의 농가가 전체농가의 44.2%를 차지하였고 1ha이상의 농가가 25.8%에 불과했으나 1986년 현재는 0.5ha미만의 농가는 32.5%로 감소했고 1ha미만의 농가는 32.5%로 감소했고 1ha이상의 농가는 36.0%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19>를 통해서 경작규모별 農家戶數 構成比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972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1973년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表18〉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單位 { 戶數: 千가구
比率: %

區分 年度	0.3ha미만		0.3~0.5ha 미만		0.5~1ha미만		1~2ha미만		2~3ha미만		3ha이상		기타 및 임금노동		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1960	10.7	21.6	11.2	22.6	14.9	30.0	10.0	20.1	2.8	5.6	0.05	0.1			49.6	100
1965	10.9	18.7	11.6	19.9	17.5	30.0	15.2	26.1	3.1	5.3					58.3	100
1970	10.7	13.7	10.3	18.0	17.3	30.2	15.6	27.2	2.7	4.7	0.7	1.2			57.3	100
1975	6.8	13.0	8.5	16.3	20.7	39.6	13.3	25.4	2.4	4.6	0.6	1.1			53.2	100
1980	7.1	13.3	10.0	18.8	17.1	32.1	13.5	25.4	2.2	4.1	0.5	0.3	2.8	5.3	53.2	100
1981	6.8	14.3	9.5	20.0	16.3	34.4	12.5	26.4	1.8	3.8	0.5	1.1			47.4	100
1982	7.0	15.1	8.3	19.0	16.0	34.6	12.2	26.3	1.9	4.1	0.4	0.9			46.3	100
1983	7.8	17.2	9.6	21.2	14.6	32.2	10.9	24.1	1.9	4.2	0.5	1.1			45.3	100
1984	7.3	16.4	8.9	20.1	15.0	33.8	10.8	24.3	2.0	4.5	0.4	0.9			44.4	100
1985	6.2	14.7	6.4	15.1	14.6	34.5	12.2	28.8	2.4	5.7	0.5	1.2			42.3	100
1986	6.1	14.5	7.6	18.0	13.3	31.5	12.2	28.9	2.4	5.7	0.6	1.4			42.2	100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表19〉 全國耕作規模別 農家構成比

單位 { 農家: 戶
構成比: %

區分 年度	計		0.3ha미만		0.3~0.5ha		0.5~1ha		1~2ha		2~3ha		3ha이상		기타	
	農家	比	農家	比	農家	比	農家	比	農家	比	農家	比	農家	比	農家	比
1960	2,349,506	100	463,415	19.7	542,209	23.2	706,689	30.1	485,933	20.7	141,371	6.0	6,889	0.3		
1965	2,506,899	100	430,825	16.0	470,015	19.0	796,864	32.0	643,305	26.0	139,599	6.0	29,191	1.0		
1970	2,487,646	100														
1975	2,379,058	100	309,773	13.0	381,210	16.0	838,157	34.8	617,897	26.0	111,717	4.7	35,982	1.5	94,322	4.0
1980	2,155,073	100	287,846	13.4	323,852	15.0	747,579	34.7	629,197	29.2	107,559	5.0	31,163	1.4	27,877	1.3
1981	2,029,626	100	265,716	13.1	339,113	16.7	742,737	36.3	544,780	26.8	83,052	4.1	23,728	1.2	30,500	1.5
1982	1,995,769	100	254,876	12.8	322,656	16.2	724,967	36.3	548,050	27.4	82,862	4.1	23,008	1.2	39,350	2.0
1983	2,000,433	100	249,966	12.5	321,396	16.1	718,967	35.9	551,864	27.6	83,512	4.2	22,808	1.1	51,920	2.6
1984	1,973,539	100	244,106	12.4	311,576	15.8	707,033	35.8	551,744	27.1	84,542	4.3	22,888	1.2	51,650	2.6
1985	1,925,869	100	245,788	12.6	292,706	15.2	686,132	35.6	549,988	28.5	87,391	4.5	23,241	1.2	45,622	2.4
1986	1,905,984	100	243,752	12.8	296,527	15.6	663,178	34.8	547,450	28.7	87,536	4.6	23,619	1.2	43,922	2.3

資料: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5. 作目別 構成

濟州道 農業은 <표20> 作目別 栽培面積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0년부터 作目別 構成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는 食糧作物 栽培面積이 1960년에는 道內 總栽培面積 65,636.6ha의 96.2%를 차지했지만 년차적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1972년에는 50,766ha인 67.1%를 차지하다가 1986년에는 總栽培面積 62,680.2ha의 43.3%인 27,161ha로 食糧作物 栽培面積의 급격히 減少하는 現象을 보여 주었고 둘째로는 特用作物 栽培面積 構成比率이 1960년에 717ha인 1.1%에서 1972년에는 11,808ha인 15.3%에서 1977년 20,455ha인 27.1%까지 증가하다가 1977년을 고비로 해서 栽培面積은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6년 현재 19.0%인 11,915ha로 그 구성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세째로는 菜蔬類 栽培面積은 1960년 2.6%인 1,688ha에서 계속 년차적으로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1986년에는 4배나 증가한 6,220ha를 차지하였고 네째로는 柑橘의 경우 栽培面積 構成比가 1960년에는 겨우 0.1%에 불과했으나 1970년에는 6.5%, 1986년에는 약 27%가 증가한 27.1%로 재배면적도 1960년 93ha에서 1986년 16,958ha로 증가하였다. 다섯째로는 1973년 과인애플, 1980년대 바나나, 화훼원예작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타 과수의 재배면적이 1970년 4ha에서 1986년에는 400배나 증가한 426.2ha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表20> 作目別 栽培面積

單位: ha

區分 年度	合 計		食糧作物		特用作物		柑 橘		菜 類		其 他	
	面積	%	面積	%	面積	%	面積	%	面積	%	面積	%
1960	65,636.6	100	63,135	96.2	717	1.1	93	0.1	1,688	2.6	3.6	0.0
1965	81,475	100	74,247	91.1	5,103	6.3	551.1	0.7	1,561	1.9	13	0.0
1970	77,171	100	58,353	75.6	11,808	15.3	5,002	6.5	2,003	2.6	4.0	0.0
1975	78,751	100	47,443	60.2	17,590	22.4	10,930	13.9	2,783	3.5	5.0	0.0
1980	71,380	100	39,144	54.8	14,647	20.5	14,095	19.8	3,425	4.8	69.0	0.1
1981	73,049	100	39,333	53.8	15,060	20.7	14,764	20.2	3,800	5.2	92	0.1
1982	70,004	100	33,569	48.0	16,728	23.9	15,500	22.1	4,114	5.9	93	0.1
1983	74,104	100	34,355	46.4	17,313	23.4	16,975	22.9	5,374	7.2	87	0.1
1984	67,549.8	100	31,024	45.9	15,208	22.5	16,975	25.1	4,169	6.2	173.8	0.3
1985	65,596.3	100	30,023	45.8	13,651	20.8	16,969	25.9	4,667	7.1	286.3	0.4
1986	62,680.2	100	27,161	43.3	11,915	19.0	16,958	27.1	6,220	9.9	426.2	0.7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作目別 生産量을 <표21>에서 보면 栽培面積의 長期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61년 總生産量의 85.8%를 點하던 食糧作物 生産량이 1971년에는 66.1%로, 1982년에는 31.7%로 뚝 떨어진 반면 1961년에는 47.9%로 占有比率이 매우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감귤의 生産量은 무려 838.5배나 증가하였다. 1981년에는 食糧作物 生産량과 감귤의 生産량이 비슷하다가 1982년부터는 감귤 한 作目的 生産량이 미국, 맥류, 두류, 서류 등 食糧作物을 모두 합한 生産량 보다도 많아지게 되었다. 특용작물 生産량은 1970

年代 후반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채소류는 가격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동은 있지만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表21〉 作 目 別 生 産 量

單位: M/T

區分 年度	合 計		食糧作物		特用作物		柑 橘		菜 蔬 類		其 他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	生産量	%	生産量	%	生産量	%	生産量	%
1960	111,077	100	87,758	79.1	1,019	0.9	191	0.1	22,109	19.9		
1965	228,558	100	194,572	85.1	5,872	2.6	1,083	0.5	27,031	11.8		
1970	166,115	100	126,777	76.3	10,136	6.1	4,972	3.0	24,230	14.6		
1975	303,400	100	159,148	52.5	19,361	6.4	81,105	26.7	43,786	14.4		
1980	430,788	100	128,144	29.7	17,038	4.0	187,470	43.5	97,072	22.5	1,064	0.3
1981	502,616	100	119,758	23.8	19,717	3.9	247,780	49.3	113,345	22.6	2,016	0.4
1982	566,584	100	103,136	18.2	25,736	3.8	523,420	57.1	115,672	20.4	2,620	0.5
1983	597,151	100	98,238	16.4	17,217	2.9	345,900	58.0	134,143	22.4	1,653	0.3
1984	488,705	100	98,254	20.1	16,845	3.4	261,000	53.5	109,053	22.3	3,553	0.7
1985	637,691	100	93,241	14.6	11,773	1.8	394,300	61.8	133,376	20.9	5,001	0.9
1986	576,090	100	77,972	13.5	11,706	2.1	333,100	57.8	146,190	25.4	7,122	1.2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表22〉에서와 같이 作目別 粗收入現況을 살펴보면 1970년에 總農業粗收入의 60.1%에 달하였던 食糧作物 粗收入이 1975년에는 43.3%, 1980년에는 31.7%, 1986년에는 16.4%로 構成比가 줄어든 반면 柑橘은 1970年の 17.3% 水準에서 1980년에는 46.6%로 1986년에는 59.4%로 構成比가 늘어나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特用作物은 1970년에 9.7%를 보이다가 중반까지는 構成比가 늘어났지만 1986년에는 5.6%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菜蔬類 粗收入은 農産物價格 特性에 기인하여 價格變動에

〈表22〉 作目別 粗收入

單位 { 粗收入: 百萬
構成比: %

區分 年度	合 計		食糧作物		特用作物		柑 橘		菜 蔬 類		花 卉	
	粗收入	比	粗收入	比	粗收入	比	粗收入	比	粗收入	比	粗收入	比
1970	6,907	100	4,149	60.1	673	9.7	1,193	17.3	892	12.9		
1975	42,148	100	18,248	43.3	5,469	13.0	14,599	34.6	3,832	9.1		
1980	116,905	100	37,110	31.7	9,765	8.4	54,500	46.6	15,530	13.3		
1981	157,165	100	39,066	24.9	17,723	11.3	78,400	49.9	21,976	13.9		
1982	191,811	100	40,087	20.9	20,494	10.7	101,000	52.7	30,226	15.7	4	0.0
1983	153,036	100	34,471	22.6	20,202	13.2	74,000	48.4	24,270	15.8	93	0.0
1984	326,425	100	40,355	12.4	20,795	6.4	115,600	35.4	35,309	10.8	4,366	1.3
1985	215,800	100	40,750	18.9	11,244	5.2	124,200	57.6	34,560	16.0	5,046	2.3
1986	238,460	100	39,071	16.4	13,262	5.6	141,600	59.4	38,927	16.3	5,600	2.3

資料: 濟州道 産業課

따라서 構成比가 增加했다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또한 1982년부터 花卉栽培가 늘어나면서 粗收入도 1986년에는 總構成比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어 年次的으로 花卉栽培가 增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食糧作物

食糧作物을 米穀·麥類·雜穀·豆類·薯類로 나누어서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표23>에서와 같이 米穀·麥類·雜穀의 栽培面積은 年次的으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豆類·薯類는 1978년을 중심으로 그 栽培面積이 계속 감소해가고 있는 實情이다.

1960년의 米穀 재배면적은 3102ha에서 1975년에는 2541ha로 1986년에는 1165ha로 지난 26년간 1937ha나 줄어들었으며 동기간 동안 麥類는 18179ha, 雜穀은 17868ha, 薯類는 1614ha나 재배면적이 줄어든 반면 豆類의 재배면적은 3624ha로 늘어났다. 이러한 食糧作物의 감소원인은 食糧作物 보다 수익성이 높은 經濟作物로 代替돼 가고 있기 때문이며 本道 換金作物의 하나인 고구마는 1961~79년까지는 계속 그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70년대말부터 酒類原料인 당밀과 타피오카를 外國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구마의 수요는 급격히 減少하기 시작하였다. 1D/M을 생산하기 위한 당밀의 原料費를 100으로 한다면 타피오카는 120, 생고구마는 187, 절간고구마는 무려 256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값싼 外國산 당밀과 타피오카가 수입될 전망이고 보면 앞으로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도내 澱粉 工場에 原料를 공급할 規模정도까지 계속 減少할 전망이다.

<表 23> 食糧作物 栽培面積

單位 { 面積 : ha
構成比 : %

區分 年度	合計		米 穀		麥 類		雜 穀		豆 類		薯 類	
	面積	構成比	面積	%	面積	%	面積	%	面積	%	面積	%
1960	63,135	100	3,102	4.9	29,181	46.3	19,524	30.9	3,928	6.2	7,400	11.7
1965	74,247	100	5,101	6.7	31,948	43.0	16,944	22.8	5,238	7.1	15,116	20.4
1970	58,353	100	2,001	3.4	25,031	42.9	4,447	14.5	10,550	18.1	12,324	21.1
1975	47,443	100	2,541	5.4	16,898	35.6	3,492	7.4	10,845	22.8	13,667	28.8
1980	39,144	100	2,038	5.2	15,526	39.6	1,492	3.8	8,403	21.5	11,685	29.9
1981	39,333	100	1,769	4.5	15,592	39.6	1,530	3.9	9,553	24.3	10,889	27.7
1982	33,569	100	1,723	5.1	15,310	45.6	1,153	3.4	7,319	21.8	8,064	24.1
1983	34,355	100	1,762	5.1	14,125	41.1	1,058	3.1	9,198	26.8	8,212	23.9
1984	31,024	100	1,374	4.4	14,075	45.4	1,040	3.4	8,608	27.7	5,927	19.1
1985	30,023	100	1,158	3.9	12,765	42.5	1,409	4.7	17,935	26.4	6,756	22.5
1986	27,161	100	1,165	4.3	11,002	40.5	1,656	6.1	7,552	27.8	5,786	21.3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豆類도 역시 수입품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겠지만 국내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국내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앞으로 가격만 현실화가 된다면 濟州道 豆類의 栽培面積은 다시 증가할 전망도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食糧作物로는 거의 麥類와 薯類가 80%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24>에서와 같이 食糧 作物재배면적은 계속적으로 減少하는데 그 생산량은 1960년 87758%에서 1972년에는 109839% 1978년에는 165474%까지 증가하다가 1978년을 고비로 해서 그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減少하여 1986년에는

77972%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재배면적에 비해 이와 같이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신품종의 보급과 영농기술의 향상, 소비량의 증대 등에 힘입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表 24〉 食糧作物 生産量 單位 { 生産量: M/T 構成比: %

區分 年度	合 計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류(정곡)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60	87,758	100	2,677	3.1	29,246	33.3	11,392	13.0	1,523	1.7	42,920	48.9
1965	194,572	100	6,530	3.4	62,836	32.3	8,249	4.2	1,904	1.0	115,054	59.1
1970	126,777	100	2,703	2.1	47,272	37.3	6,147	4.8	4,325	3.4	66,330	52.4
1975	159,148	100	5,590	3.5	37,335	23.5	4,579	2.9	10,073	6.3	101,571	63.8
1980	128,144	100	4,126	3.2	40,469	31.6	1,794	1.4	7,627	6.0	74,128	57.8
1981	119,758	100	4,384	3.7	42,748	35.7	1,624	1.4	6,182	5.2	64,820	54.0
1982	103,136	100	4,768	4.6	40,514	39.3	1,248	1.2	8,963	8.7	47,643	46.2
1983	98,238	100	4,529	4.6	30,311	30.9	894	0.9	4,969	5.1	57,535	58.5
1984	98,254	100	4,161	4.2	41,406	42.1	1,298	1.3	9,405	9.6	41,984	42.8
1985	93,241	100	3,699	4.0	34,347	36.8	1,718	1.8	7,984	8.6	45,493	48.8
1986	77,972	100	2,305	3.0	31,504	40.4	1,798	2.3	6,488	8.3	35,877	46.0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7. 特用作物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用作物로는 인초, 참깨, 들깨, 해바라기, 아жу까리, 박하, 차, 호프, 유채, 수세미, 제충국 등을 들 수가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제주도의 특用作物로는 유채, 참깨, 목화, 들깨 등을 들 수가 있고 이 중에서도 유채와 참깨가 거의 주종을 이르고 신서란, 제충국, 목화 등 나머지 종류들은 1970년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用作物 재배면적을 〈표25〉에서 보면 1960년 717ha에서 1978년 19785ha로 약 28배로 증가하였으나 그후부터는 년차적으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11915ha로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 유채는

〈表 25〉 特用作物 栽培面積 單位 { 面積: ha 構成比: %

區分 年度	合 計		유 채		참 깨		기 타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1960	717	100	0	100	77	10.7	640	89.3
1965	5,103	100	4,793	93.9	98	1.9	812	4.2
1970	11,807	100	10,440	88.4	1,314	11.1	53	0.5
1975	17,590	100	12,928	73.5	4,612	26.2	50	0.3
1980	14,617	100	8,150	55.8	6,329	43.3	138	0.9
1981	15,060	100	9,141	60.7	5,754	38.2	165	1.1
1982	16,728	100	10,260	61.3	6,366	38.1	102	0.6
1983	17,313	100	9,924	57.3	7,260	41.9	129	0.8
1984	15,208	100	7,403	48.7	7,668	50.4	137	0.9
1985	13,650	100	6,251	45.8	7,286	53.4	114	0.8
1986	11,915	100	5,547	46.6	6,316	53.0	52	0.4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제주도에 1961년도에 처음으로 1199ha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1970년까지 거의 90%이상을 차지하다가 1973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구성비의 약 47%로서 5547ha로 감소하였다.

반면 참깨의 재배면적은 1960년 77ha에서 1972년 2543ha 1981년 5754ha 1986년 6316ha로 년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그 구성비도 50%를 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油菜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油菜는 耐寒力이 弱하기 때문에 本道와 全南 一部地域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고 高級食用油의 原料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77년에 정부가 발표한 輸入自由化 커다란 對象品目에 포함됨으로써 油菜販路에 커다란 暗影을 던지게 되었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換金作物으로써의 位置를 내놓아 春期開花時 觀光資源으로 전략하는 作物이 될 지경에 이르면서 앞으로 油菜는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濟州道內의 特用作物 生産量을 <표26>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1960년 1019%에서 1975년 19361%으로 증가하다가 1986년에는 11706%으로 재배면적이 감소와 함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생산량의 80%이상이 유채로 나타났다. 참깨도 재배면적의 증가에 힘입어 1960년 15%에서 1986년에는 139배나 증가한 2090%으로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表 26> 特用作物生産量

單位 { 生産量: M/T
構成比: %

區分 年度	台 計		유 채		참 깨		기 타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1960	1019	100	0	0	15	1.5	1,004	98.5
1965	5,873	100	4,108	69.9	51	0.9	1,714	29.2
1970	10,136	100	9,718	95.9	381	3.8	37	0.3
1975	19,361	100	16,881	87.2	2,437	12.6	43	0.2
1980	17,038	100	15,648	91.8	1,294	7.6	96	0.6
1981	19,718	100	16,952	86.0	2,632	13.3	134	0.7
1982	21,736	100	18,520	85.2	3,113	14.3	103	0.5
1983	17,217	100	13,421	78.0	3,665	21.3	131	0.7
1984	16,845	100	12,409	73.7	4,298	25.5	138	0.8
1985	11,773	100	9,827	83.5	1,850	15.7	96	0.8
1986	11,706	100	9,572	81.8	2,090	17.9	44	0.3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8. 柑 橘

경제성장에 따르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품소비수준도 고급화 내지 다양화되어 肉類와 青果類등 成長農産物에 대한 소비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需要增加要因과 더불어 各種 栽培技術의 향상과 농어촌소득증대 특별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 一連의 增産誘因에 자극되어 柑橘은 크게 成長發展하여 왔다.

감귤의 배재면적은 <표27>에서 처럼 1960년의 93ha에서 1986년에는 16985ha로 무려 183배가량 늘어났으며 생산량 역시 1960년의 191%에서 1986년에는 333100%으로 1744배라는 엄청난 증가를 보여 주었다.

〈表 27〉 年度別 柑橘生産 動向

年度	區分					
	面積(ha)	生産量(M/T)	粗收益(百萬元)	관당가격(3.75kg)	栽培農家(戶)	
1960	93	171	30.6	229		
1965	551	1,803	173.3	588		
1970	5,002	4,972	953	1,094		17,051
1975	10,930	81,105	14,599	1,263		21,809
1980	14,095	187,470	54,560	1,411		19,996
1981	15,000	247,780	78,397	1,344		20,545
1982	15,499	323,420	100,903	1,197		20,645
1983	16,975	345,900	74,044	947		23,182
1984	16,975	261,000	115,600	1,563		23,182
1985	16,969	394,300	124,189	1,380		23,332
1986	16,985	333,100	141,598	1,821		23,685
1987	17,614	464,391	166,818	2,081		24,632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감귤의 년도별 生産動向을 보면 재배면적은 1980년에 총 14095ha로서 1970년 15002ha 對比 2.8배 늘어났고 生産量은 1970년에 161434%으로 31.4배 증가함으로써 전체 과일 생산량 중 감귤의 比重은 다음 〈표28〉에서와 같이 1970년의 1.2%에서 1986년 23.6%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 16년간 果實중 가장 팔목할 만한 신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감귤생산량의 급증은 과실의 主宗이었던 사과와 경우 老朽果木 및 在來品種의 新現代替過程에서 單位當 收量이 低下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新規造成한 감귤果園의 成課수령 到來로 최근 單位當 收量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지난 10년간 사과의 段收는 약 10% 줄어든 反面 감귤의 段收는 약 15배 늘어났다.

또한 감귤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조수익을 살펴보면 1960년에 30.6百萬元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953百萬元이고 1980년에는 54560百萬元, 1986년에는 1960년에 무려 462배가 되는 141598百萬元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또한 제주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감귤농업은 7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高收益性과 繼續되는 供給不足으로 急速히 成長하면서 감귤이 고가로 판매되어 어떠한 농작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환금작물인 경제작물로 각광을 받

〈表 28〉 全國 果實 生産

單位 { 生産量: M/T
構成比: %

區分 品目	1960		1970		1980		1986		D/A	D/B	D/C
	生産量	比	生産量	比	生産量	比	生産量	比			
계	166,371	100	423,260	100	833,081	100	1,437,601	100	8.9	3.5	1.8
사과	104,052	62.5	212,041	50.1	410,047	49.2	537,737	37.4	5.2	2.5	1.3
배	26,822	16.1	52,041	12.3	59,570	7.2	135,069	9.4	5.0	2.6	2.3
복숭아	13,759	8.3	78,098	18.5	88,692	10.6	138,654	9.6	10.1	1.8	1.6
포도	3,622	2.2	34,145	8.1	56,764	6.8	165,470	11.5	45.7	4.8	2.9
감귤	190	0.1	5,141	1.2	161,434	19.4	339,507	23.6	1,786.9	66.0	2.1
감	13,543	8.1	30,310	7.2	31,837	3.8	98,906	6.9	7.3	3.3	3.1
기타	4,383	2.7	11,484	2.6	24,737	3.0	22,258	1.6	5.1	1.9	0.9

資料: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의 民間資本은 柑橘농업의 開發에 集中되어 急速度로 資本形成이 이루어지면서 植付面積의 擴大와 함께 栽培技術의 普及擴大· 품종갱신 그리고 樹齡增加에 따른 生産性 向上에 힘입어 급속한 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生産의 急速한 伸張은 70年代以後 계속 需要增加를 앞지름으로써 사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에 있다.

농산물 중에는 果實類等은 다른 品目에 비해 부패성이 높고 계절성· 품종 등 자연적 요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供給의 安定을 期하기 爲해서는 加工處理가 必要하다. 뿐만 아니라 需要面에서도 「인스턴트」食品인 加工食品에 대한 需要가 크게 늘고 있어 果實加工의 開發이 어느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제주도의 柑橘생산은 대체로 국내수요에 충당되어 왔으며 그 수요량의 대부분을 生食用으로 消費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스턴트」식품과 과실음료 등의 수요량 증가에 힘입어 柑橘농축액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어 加工用需要比重이 높아지는 反面 生食用需要의 比重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柑橘價格은 經濟成長과 더불어 都賣物價의 上昇에도 불구하고 最近 生産量의 急增에 따라 相對的으로 다른 果實에 비해 價格이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표29>에서와 같이 柑橘의 經常價格(農

<表 29> 年度別 柑橘 農家 販賣 價格動向

單位 { 價格: 원
指數: %

區分 年度	物價指數 (1980=100)	柑 橘				사 과			
		經營價格 指數	實質價格 指數	經營價格 指數	實質價格 指數	經營價格 指數	實質價格 指數	經營價格 指數	實質價格 指數
	100)								
1970	20.2	1,094	100.0	5416	100.0	908	100.0	4,495	100.0
1971	22.0	1,318	120.5	5991	110.6	1194	131.5	5,427	120.7
1972	23.9	1,365	124.8	5,711	105.5	1,315	144.8	5,502	122.4
1973	27.3	1,193	109.1	4,369	80.7	1,445	159.1	5,293	117.8
1974	29.2	1,064	97.3	3,463	63.9	2,159	237.8	7,517	167.2
1975	41.4	1,263	115.5	3,050	56.3	2,642	291.0	6,382	142.0
1976	49.8	1,227	112.2	2,463	45.5	3,008	331.3	6,040	134.4
1977	54.3	1,779	162.6	3,276	60.5	3,473	382.5	6,396	142.3
1978	60.6	1,461	133.5	2,411	44.5	3,944	434.4	6,508	144.8
1979	72.0	1,381	126.2	1,918	35.4	4,692	516.7	6,517	145.0
1980	100.0	1,411	129.0	1,411	26.1	4,867	536.0	4,867	108.3
1981	120.4	1,344	122.9	1,116	20.6	5,159	568.2	4,285	95.3
1982	126.0	1,197	109.4	950	17.5	5,247	577.9	4,164	92.6
1983	126.3	947	86.6	750	13.8	4,985	539.1	3,947	87.8
1984	127.2	1,563	142.9	1,229	22.7	4,360	480.2	3,428	76.3
1985	128.3	1,380	126.1	1,076	19.9	6,082	669.8	4,740	105.5
1986	125.5	1,821	166.5	1,450	26.8	5,621	619.1	4,479	99.6

資料: 農協中央會, 農協調查月報

家販賣價格)은 1970년에 貴當(3.75kg) 1094원에서 1986년에는 1821원으로 66.5% 상승하였으나 全國都賣物價指數(1980年=100)로 디플레이트한 1986年の 實質價格은 1970年の 5416원에 비해 28.8% 水準까지 하락을 한 셈이다. 한편 柑橘에 비해 사과의 경사가격을 보면 1970년에 5貴當 908원에서 1986년에는 0.6배 정도 상승했는데 비해 約 4배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고 1986年の 實價價格도 1970年の 4495원 水準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柑橘은 1970年 이전에 相對的으로 높은 價格上昇率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970年 이후에는 他果實에 비해 實質價格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30>에서와 같이 감귤 생산처리 상황을 보면 1975년에는 제주도 감귤생산량의 7%로 정도가 주스, 통조림, 음료 등으로 가공되었으나 1986년 현재는 국내생산량의 12.5%에 해당하는 41458%이 가공됨으로써 약 87.5%가 생식용으로 소비되었다.

<表30> 柑橘生産 處理狀況

單位 {
面積: ha
生産量: M/T
組收入: 千圓
構成比: %

區分 年度	面積	生産量	流通處理						組收入
			生果搬出	比	加工處理	比	其他消費	比	
1960	93	191	—	—	—	—	—	—	30,600
1965	551	1,803	—	—	—	—	—	—	173,300
1970	5,002	4,972	—	—	—	—	—	—	953,000
1975	10,930	81,105	70,390	86.7	5,858	7.2	4,938	6.1	14,599,000
1980	14,095	187,470	154,046	82.2	23,798	12.7	9,626	5.1	54,500,000
1981	14,764	247,780	205,922	83.1	22,740	9.2	19,118	7.7	78,397,000
1982	15,500	323,400	264,620	87.8	44,159	13.6	14,641	4.6	100,904,000
1983	16,975	345,900	295,311	85.4	33,059	9.6	17,530	5.0	74,043,816
1984	16,975	261,000	222,332	85.2	23,810	9.1	14,858	5.7	115,582,000
1985	16,969	394,300	313,041	79.4	65,659	16.7	15,600	3.9	124,189,000
1986	16,968	333,100	278,808	83.7	41,458	12.5	12,834	3.8	141,598,000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全國 原料別 果實加工實績을 <표31>에서 살펴보면 다른 과실 가공량에 비해 1980년 46.8% 1981년 45% 1982년 58.1% 1983년 47.7% 1984년 50.3% 1985년 66.9% 1986년 52.1로 평균 52.4%를 차지하고

<表31> 全國原料別 果實加工實績

單位 {
加工量: M/T
構成比: %

區分 年度	計	감귤		포도		복숭아		사과		배		살구		기타		
		加工量	比	加工量	比	加工量	比	加工量	比	加工量	比	加工量	比	加工量	比	
1980	56,869	100	23,789	46.8	18,295	32.2	10,869	19.1	3,815	6.7	59	0.1	—	—	33	0.1
1981	67,328	100	30,307	45.0	12,859	19.1	13,806	19.1	3,815	6.7	59	0.1	—	—	33	0.1
1982	78,976	100	45,861	58.1	13,343	16.9	9,203	11.7	10,552	13.3	4	0.0	6	0.0	7	0.0
1983	72,304	100	34,465	47.7	13,764	19.1	8,545	11.8	15,432	21.3	—	—	90	0.1	8	0.0
1984	54,890	100	27,602	50.3	9,223	16.7	10,844	19.8	6,179	11.3	208	0.4	152	0.3	682	1.2
1985	96,424	100	71,238	66.9	13,432	12.6	12,428	11.7	8,290	7.8	260	0.3	235	0.2	541	0.5
1986	93,009	100	48,455	52.1	14,970	16.1	45,059	15.6	13,659	14.7	341	0.4	768	0.8	287	0.3

資料: 農協中央會, 農協調查月報

있는 실정으로 주스, 통조림, 음료 기타 등으로 많이 가공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된 전망이다.

9. 園藝作物

園藝作物은 그 需要가 增加趨勢에 있으며 특히 88년의 올림픽개최 등으로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채소류는 前年度의 價格變動에 따라 栽培面積 및 生産量의 變動幅이 클 뿐만 아니라 貯藏性이 약하고 계절적인 임시출하에 의한 價格이 振幅이 커서 品目別·季節別 需要에 알맞는 計劃生産을 유도할 수 있는 需給安定政策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濟州道の 園藝作物은 濟州도가 갖고 있는 温暖한 기후조건과 特用作物의 斜陽化에 따른 代替作物로서 그리고 경제가 發展하고 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園藝作物에 대한 需要增加에 힘입어 濟州의 園藝作物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1) 菜蔬園藝

菜蔬類의 栽培面積은 다음 <표32>에서와 같이 1960년의 1688ha에서 1970년의 2003ha이고 1986년에는 6220ha로 무려 4532ha가 늘어난 3.7배로 나타났고 수확량 역시 1960년 22109%에서 1970년에 24230%이고 1986년에는 1960년보다 6.6배나 증가한 146190%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表32> 菜蔬類 生産量 比較 單位 面積:ha
生産量:M/T

年度	濟 州 (A)			全 國 (B)		B/A	
	面積	10a당	生産量	面積	生産量		
1960	1,688	1,309	22,109	—	—		
1965	1,561	—	27,031	150,673	1,576,005	96.5	58.3
1970	2,003	1,210	24,230	254,279	2,513,711	126.9	103.7
1975	2,783	—	43,786	276,460	2,911,470	99.3	66.5
1980	3,425	3,833	97,072	351,042	7,165,156	102.5	73.8
1981	3,800	2,982	113,345	355,459	7,443,841	93.5	65.7
1982	4,114	2,811	115,672	335,088	7,871,362	81.5	68.4
1983	5,374	2,496	134,143	314,071	6,752,605	58.4	50.3
1984	4,169	2,616	109,053	308,423	7,113,622	74.0	65.2
1985	4,667	2,431	133,376	327,213	6,934,848	70.1	52.0
1986	6,220	2,350	146,190	357,018	7,571,500	57.4	51.8

資料: 農水省, 農林統計年報

채소류중에서도 제주도의 농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무우, 배추, 파 등을 들 수 있다. 당근의 경우 다음 <표34>에서 처럼 1969년부터 제주도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재배면적이 4.2ha에 불과하였는데 1986년에는 무려 215배나 증가한 905ha이고 생산량 역시 1970년의 29%에서 1986년에는 16,933%으로 584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마늘 재배면적은 1961년에는 126ha에서 1970년 203ha로 1986년에는 1961년보다 무려 15배나 증가한 1,891ha였고 생산량은 1961년에 936%에서 1970년에 1,849%이고 1986년에는 18,815%으로 1961년보다 20배인 17,879%이 증가하였다.

〈表33〉 菜蔬類 生産量(I)

單位 { 面積 : ha
生産量 : M/T

年度	배 추			무 우			양 배 추			파			양 파		
	면적	10a당	수량	면적	10a당	수량	면적	10a당	수량	면적	10a당	수량	면적	10a당	수량
1960	255	185	474	372	1,390	5,173	28	1,167	327	-	-	-	430	2,200	9,461
1965	431	1,659	7,159	267	1,968	5,296	86	2,312	2,005	21	1,905	237	311	1,875	5,840
1970	623.2	1,357	8,461.2	423.55	1,377	5,832.7	52.24	2,548	1,332.1	18.67	1,163	210.4	183.17	1,267	2,320.6
1975	614.9	1,698	10,438.7	793.8	1,776	14,094	131	2,455	3,215.7	51.6	1,179	668.6	227.1	2,467	5,602.8
1980	499.9	5,454	27,263.6	569.3	3,520	20,038.4	196.9	4,491	8,842	112.3	2,377	2,669.3	250.5	3,324	8,327.7
1981	555.8	5,381	32,409.4	490.3	4,642	22,760.9	259.8	4,618	11,983	69.4	2,875	1,995	306.4	3,314	10,153
1982	513.9	5,926	30,456	462.9	4,929	22,819	312.1	3,876	12,097	58.5	2,221	1,299	413.1	3,649	15,075
1983	417.7	5,500	22,974.5	379	4,587	17,357	519	4,200	21,798	37.4	2,270	849	707	2,821	1,994.8
1984	711	4,736	33,659	379	4,285	16,278	276	4,170	11,517	68	2,124	1,434	278	3,108	8,647
1985	556	5,287	29,413	357	4,455	15,884	296	3,753	11,783	52	2,217	1,142	485	2,942	14,261
1986	663	5,596	37,092	386	4,270	17,636	425	3,912	16,628	86	2,315	1,979	439	3,266	14,345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表34〉 菜蔬類 生産量(II)

單位 { 面積 : ha
生産量 : M/T

年度	당 근			고 추			마 늘			합 계		
	면적	10a당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1960	-	-	-	-	-	-	-	-	-	1,688	1,309	22,109
1965	-	-	-	26	296	78	157	1,193	1,876	1,561	-	27,031
1970	4.2	690	29	139.2	83	115.7	202.5	913	1,849.1	2,003	1,210	24,230
1975	18.5	709	131	207.5	97	202.2	262.7	738	1,938.7	2,307	1,513	36,292
1980	494.4	2,385	11,788	261.8	130	339.2	560	1,077	6,031.4	3,425	2,833	97,072
1981	716.7	1,906	13,659	667.6	107	72.4	745	904	6,734	3,800	2,982	113,344
1982	740.6	1,759	13,027	153.2	108	165	838.5	875	7,336	4,114	2,811	115,672
1983	1,328	1,900	25,232	114.5	104	119	1,250	992	12,395	5,374	2,496	134,144
1984	683	1,800	12,287	106	102	109	967	1,085	10,502	4,169	2,616	109,053
1985	815	1,763	14,369	128	94	120	1,123	906	10,183	4,667	2,431	133,376
1986	905	1,871	16,933	150	97	146	1,891	995	18,815	6,220	2,3506	146,190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양배추와 양파 재배면적도 1960년에 28ha, 430ha에서 1986년에는 425ha, 439ha로 늘어났으며 생산량도 237%, 9,461%에서 16,629%, 14,345%으로 각각 51배, 1.5배가 증가하였고, 배추와 무우재배면적도 1960년 255ha, 372ha에서 1986년 633ha, 386ha로 증가하였다.

이들 品目들은 처음에는 一定地域에서 栽培해오다가 점차 道 全域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채소류는 자연조건에 의한 作況豊凶이 심하고 作況豊凶여하에 따라서 價格形成이 매우 민감하게 작

융합으로 위험부담률이 매우 높고 유통구조 역시 多段化 되어 왔다. 그리고 週期的인 과잉생산이 招來됨으로써 價格下落과 大量腐敗를 가져와 생산농가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2) 花卉園藝

우리나라의 花卉園藝는 1960년대 初期大都市近郊에서 小規模로 栽培되기 시작하던 것이 경제의 급속한 發展과 都市化의 전진과 더불어 商業的 農業으로서 定着되면서 發展하여왔다. 最近에 들어서면서 花卉園藝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花卉園藝는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消費者支出에서 花卉支出이 차지하는 比重으로 보아 現在로서는 産業으로 重要性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生産이 特殊轉業農家나 일부 副業農家에 限定되어 있고 需要도 아직 一般化되어 있지 못한 實情이어서 우리나라의 花卉園藝는 아직까지도 幼兒期狀態를 벗어나지 못한 實情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花卉에 대한 需要는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양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또는 88년 올림픽개최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高所得作目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처하여 政府에서는 지난 83년부터 年次計劃에 의해 花卉農家を 육성하기 시작하여 '86년에도 花卉示範圍地의 造成, 栽培施設의 現代化, 海外市場의 개척을 적극추진하였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花卉類는 輸入對替를 확대하는 한편 輸出競爭力이 있고 특히 栽培與件이 좋은 品目等은 수출유망품종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支援에 힘입어 1986년의 花卉生産額은 前年對比 18%가 늘어난 882億원에 이르렀고 栽培農家は 6,105戶로 14%, 재배면적은 2,381ha로 6%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花卉農家は 70년대초부터 商業的 農業으로 定着되고 發展해 왔으나 濟州道의 花卉園藝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栽培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以前까지만해도 濟州道는 花卉栽培하기에 大都市近郊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비해서 地域的 競爭力은 지니지 못했으나 두차례에 걸친 油類波動으로 因해서 월동용난방비가 시설원예의 경영에 큰 몫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조건이 좋은 濟州道는 大都市市場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地域的 不利함보다는 기후조건이 좋다는 利點으로 인해서 그리고 항공운송수단의 발달로 신속하고 선도있게 大都市로 出荷가 가능함으로써 地域的 競爭力을 지니게 되었다.

〈표35〉에서와 같이 濟州道 花卉農家動向을 살펴보면 재배면적이 1980년 31ha에서 1985년 98.3ha로

〈表35〉 道内 花卉農家動向 單位 (面積: ha, 生産額: 百萬원)

年度	區分	栽培面積	農家戶數(戶)	生産額
1980(A)		31	66	3,598
1981		27.7	61	4,022
1982		36.1	100	5,120
1983		60.2	166	5,427
1984		69	221	4,366
1985(B)		98.3	314	5,067
B/A		3.2	4.8	1.4

資料: 濟州道 統計課

表36) 全國花卉農家動向

面積: ha
單位 { 農家數: 戶
生產額: 百萬원

年度	區分	栽培面積	農家數	生產額	1戶當消費額
1975		1,070	2,446	6,716	190원
1976		1,603	2,445	7,135	
1977		2,065	2,898	12,880	
1978		1,357	2,161	11,201	
1979		1,185	2,181	11,764	
1980(A)		1,280	2,733	21,351	531
1981		1,239	3,093	20,010	
1982		1,457	3,755	32,086	
1983		1,832	4,197	56,093	
1984		2,000	4,294	61,156	
1985		2,249	5,365	74,599	1,823
1986(B)		2,381	6,105	88,156	2,122
B/A		1.9	2.2	4.1	4.0

資料: 農林水産部 農産物 流通局

약 3.2배나 증가하였고 농가호수도 66戶에서 4.8배나 증가한 314戶數로 나타났다. 그리고 花卉農業으로 벌어들인 生産額은 50億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은 여러가지면으로 보아 濟州道の 花卉農業은 미비한 實情이나 花卉에 대한 需要增加와 기후적인 利點, 花卉가 비교적 代替作物로서의 가능성 때문에 濟州道の 花卉農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가는 전망이다.

3) 施設園藝

施設栽培은 栽培環境(溫度·日光·水分·炭酸gas等)을 作物生育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調節하면서 栽培하는 것이므로 같은 場所에서 栽培方式이 多樣하게 分化가 될 수 있으며 生産 그 自體도 노지재배에 비하여 매우 安定性을 갖게 된다. 그러나 栽培環境을 人爲的으로 調節하면서 作物을 栽培하는 施設園藝라 하더라도 아직은 施設栽培을 爲한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環境調節技術水準이 낮고 施設 그 자체에도 결함이 많을 뿐 아니라 각종 調節장치의 성능이 낮은 경우에는 氣象條件, 特히 外部溫度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施設園藝는 主로 溫暖한 氣候條件을 갖춘 地域에서 發達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西歸浦市를 中心으로 한 山南地域에서 다른 地域에서 보다 일찍 施設栽培가 發達한 것은 여러가지 立地條件이 다른 地方에 比하여 적합하기 때문에 濟州道에서 施設栽培에 대한 面積이 증가하면서 施設栽培에 대한 作物도 매우 多樣化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施設園藝 栽培面積 및 生産量을 <표37>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1975年 파인애플 면적은 3.6ha에서 1987年 163ha고 12年동안 約 30.4%에서 139배가 증가한 4.225%으로 매년 增加하였고, 1983年을 기점으로 栽培하기 시작한 바나나와 키위는 그 栽培面積이 3.8ha와 28ha에서 1987년에는 344ha과 156.6ha으로 각각 90.5倍, 5.6倍 늘어났고 生産量은 바나나가 1983年에 58%에서 4年동안 무려 173배가 增加한 10,014 %이고 키위도 同期間동안 25%에서 4倍增加한 99.6%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表37〉 施設園藝栽培面積 및 生産量

單位 { 面積:ha
生産量:M/T

區分 年度	과 인 애 플			바 나 나			키 위			기 타		
	면적	10a당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1975	3.6	846	30.4									
1976	5.5	1,023	56.3									
1977	9.4	957	90									
1978	21.7	1,465	318									
1979	41.98	1,379	579.1									
1980	68.9	1,543	1,063.5									
1981	92	2,184	2,015									
1982	93	2,823	2,620.4									
1983	87	1,900	1,653	3.8	1,526	58	28	89	25	36.7	10	3.8
1984	89	3,540	3,172	13.3	2,398	319	71.5	87	62	39.1	13	5
1985	104.7	3,364	3,552	58.2	2,390	1,391	123.4	71	88	49.7	20	10
1986	116.5	5,198	3,680	167.6	4,145	3,361	142	596	126	49.7	160	9.8
1987	163	4,628	4,225	344	4,488	10,014	156.6	338	99.6	38.3	278	21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IV. 要約 및 發展方向

1. 要約

지금까지 內容을 要約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濟州道の 農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1986年 188,444名으로 濟州道 總人口의 36.3%나 차지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總人口 가운데 農業人口의 比率 19.7%보다는 매우 높아 아직도 濟州道는 많은 農業人口를 보유하고 있으며 年齡別로는 生産年齡人口(15~60才)가 1970年 52.5%에 비해 1986年 64.9%로 나타나 年次的으로 增加하였다.

2) 業態 및 形態別 農家戶數를 살펴보면은 田作農家は 1960年에 48,950家口로 全體農家の 98.4%나 차지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1979년에는 38,860家口로 全體農家の 73.1%로까지 감소했으며 과수 농가는 1960년에는 불과 44家口였으나 그 후 계속 增加하여 1979년에는 10,450家口로 늘어났고 全體 農家戶數의 19.7%를 차지하게 됐다. 特用作物農家와 菜蔬農家は 1960년부터 70年代 中반까지 停滯 狀態에 놓여있다. 形態別로는 1975년에 全業이 차지하는 比率이 79%, 1種兼業이 12.7% 2種兼業이 8.3%에서 1986년에는 全業이 65.6%, 1種兼業이 16.7%, 2種兼業이 17.8%로 나타나 年次的으로 全業은 감소하는 반면 1種兼業과 2種兼業은 增加하고 있다.

3) 家口當 耕地面積은 1960年의 0.872ha에서 1986년에는 1.288ha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1ha정도의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4) 耕作規模別 農家構成의 변동추이는 0.5ha미만의 극히 零細한 農家は 1960~1975년까지 減少하다가 그 이후부터 增加하고 있고 0.5~1ha농가는 1960~1975년까지 그리고 1~2ha의 農家は 1960~1970년까지 계속 增加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2ha이상은 減少하고 있다. 특히 0.5ha미만의 농가는 濟州道가 全體 農家の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全國의 29.0% 水準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濟州道는 0.5ha미만의 극히 零細한 農家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濟州道の 農業은 1960년부터 作目別 構成에 있어서 뚜렷한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食糧作物 栽培面積의 급격한 減少現象이다. 1960년에는 食糧作物 栽培面積이 63,135ha로 道內 總栽培面積 65,637ha의 96.2%를 차지했으나 1986년에는 27,161ha로 道內 總栽培面積 62,680ha의 43.3%로 감소했으며, 둘째로는 特用作物 栽培面積 構成比率이 1960年 1.1%에서 1975年 22.4%로 계속 증가해 오다가 1975年을 고비로 해서 栽培面積은 減少하기 시작하여 1986年 現在는 19%로 그 構成比率이 떨어졌다. 셋째로 菜蔬類는 栽培面積 構成比率이 1960年 2.6%에서 1986年 9.9%로 栽培面積이 계속 增加하고 있으며, 넷째 柑橘의 경우도 栽培面積 構成比率이 1960年 겨우 0.1%에 불과했으나 1986년에는 27.1%로 까지 增加하였다.

6) 作目別 生産量을 보면 재배면적의 장기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60년에는 道內 總作物生産量의 79.1%를 點하던 食糧作物生産량이 1986년에는 13.5%로 뚝 떨어진 반면 1960년에 生産量 構成比가 0.1%에 불과했던 柑橘은 1986년에는 57.8%로 占有比率이 매우 높아졌다. 菜蔬類도 1960년에는 19.9%에서 1986년에는 25.4%로 꾸준히 增加했으나 特用作物은 1960년에는 占有比率이 0.9%에서 1975년에는 6.4%로 1960~1965년까지는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부터는 감소하여 1986년에는 2.1%로 占有比率이 떨어졌다.

7) 作目別 粗收入에 있어서도 1970년에 道內 總農業粗收入의 60.1%에 달했던 食糧作物粗收入이 1986년에는 16.4%로 構成比가 뚝 떨어졌으며 柑橘은 1970年の 構成比가 늘어났으며, 特用作物은 70年 中반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減少하는 傾向이며, 菜蔬類는 價格變動에 따라서 構成比가 增加했다가 減少하는 등 하고 있다.

8) 食糧作物 中에서 米穀·麥類·雜穀의 栽培面積은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豆類는 1975년까지 薯類는 1980년까지 栽培面積이 增加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減少해 가고 있다. 食糧作物 栽培面積이 계속적인 減少에도 불구하고 生産量은 오히려 1960年의 87,758%에서 1986년에는 128,144%으로 增加하다가 1986년에는 77,972%으로 減少하였다.

9) 濟州道の 特用作物로는 유채·참깨·목화·들깨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목화와 들깨는 생산의 극히 미미한 實情이고 유채나 참깨가 주종이 되고 있다. 유채는 1961년부터 栽培하기 시작하여 1965年 4,793ha에서 1980年 8,150ha로 65年을 기준으로 하여 2배 增加했으나 그 후부터 減少하고 1986년에는 5,547ha로 줄어들었고 生産量 역시 재배면적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깨는 栽培面積이 1960년에는 77ha에 불과했으나 그 栽培面積이 점차 增加하여 1986년에는 6,316ha로 1960年을 기준으로 栽培面積이 82배 伸장되었고 生産量 역시 1960年의 15%에서 1986년에는 2,090%으로 140배나 增加하였다.

10) 柑橘의 栽培面積은 1960年의 93ha에서 1986년에는 17,614ha로 무려 189배가량 늘어 났으며 生産量 역시 1960年의 171%에서 464,391%으로 2,715배로 크게 增加하였다. 그리고 全國 果實生産量 가운데에서 柑橘은 約 23.6%로 나타나 사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 柑橘生産量の急増으로 인하여 柑橘價格은 사과와 1970年과 1986年의 實質價格에 비해 무려 27%나 떨어진 5,416원에서 1,450원으로 나타나 柑橘價格은 都賣物價의 上昇에도 불구하고 毎年 價格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生産水準의 向上에 힘입어 柑橘處理에서 生果는 年次的으로 減少하는 반면 加工處理量은 增加하여 1975年 7.2%에서 1986年 12.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果實의 加工實績도 全體果實이 約 52%를 차지하고 있다.

12) 菜蔬類의 栽培面積은 1960年의 1,688ha 1986년에는 6,229ha로 3.7倍 增加하였고 生産量 역시 1960年의 22,109%에서 1986년에는 146,190%으로 6.6倍가 늘어났다. 菜蔬類 가운데 당근은 1970年 栽培面積은 4.2ha에 불과했는데 1986년에는 905ha로 무려 215倍가 늘어났고 生産量 역시 1970年의 29%에서 1986년에는 16,933%으로 584倍가 增加하였다. 양배추 栽培面積은 1960年의 28ha에서 1986년에는 425ha로 15.2倍, 同期間동안 배추와 무우도 255ha, 372ha에서 1986년에는 663ha와 386ha로 배추는 2.6倍, 무우는 1.1倍가량 늘어났다. 양파도 같은 기간 동안 430ha에서 439ha로 늘어났으며 生産量은 9,461%에서 14,345%으로 1.5倍가량 증가했다.

13) 花卉에 대한 需要는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國民所得의 增加에 따른 生活樣式이나 技術에 따라서 또는 '88年 올림픽개최에 힘입어 花卉類의 栽培面積은 1980年의 31ha에서 1986년에는 98.3ha로 5年 사이에 3.2倍 가량 增加하였고 農家戶數도 同期間동안 66戶에서 4.8倍나 增加한 314戶로 나타났다.

14) 栽培面積을 作物生育에 맞게 攄 調節하면서 栽培하는 施設栽培는 栽培施設費가 많이 들에도 불구하고 그 栽培面積이 계속 增加하고 있어 1975年 파인에플은 3.6ha에서 1987年 163ha로, 1983年에 시작한 바나나와 키위는 栽培面積이 3.8ha와 28ha에서 1987년 344ha와 156.6ha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發展方向

얻어진 分析結果에 따라 濟州道 地域農業의 發展을 위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濟州道 農業이 지니는 構造的 特質, 즉 勞動力의 過剩, 經濟規模의 狹小,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所得이 낮은 田作爲主의 食糧作物生産, 資本의 不足, 技術水準의 低位 등 때문에 濟州道 農業은 관광업이나 기타 敍어비스업에 비해 相對的으로 쇠퇴해 가고 있으며 이것은 時間이 지난다 해서 自然히 改善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道 當국은 均衡있게 農業部門에 대한 계속적이고 效率的인 支援政策이 꼭 必要하다.

2) 戶當 평균 1ha의 耕地面積에서 農家所得을 일정 水準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農外所得을 증대 시켜야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農外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農外所得을 올리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農村工業育成이다. 農村工業에 의한 農外就業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農外 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濟州道の 경우 제주도 農産物과 水産物을 原料로 한 加工工場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公害문제를 야기시키지 말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 구좌읍에 당근과 마늘 가공 공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서귀포에 감귤 가공 공장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성산포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농·수산물 운반 상자의 제작 공장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관광토산품 부업단지를 지역별로 몇개 지역으로 나눠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있겠고, 셋째로는 관광농원을 잘 육성하고 활용하여 취업을 확대시키고 직거래에 의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겠다.

3) 農業人口의 지속적인 감소는 1人當 耕地面積을 증대시켜 농번기의 인력부족을 초래시킬 수 있으나 이 문제는 營農技術의 科學化와 營農의 機械化를 통한 生産性的 提高를 지향하게 되면 경지면적이 중농층에 재분되어 건전한 중농층의 構成比率을 높일 수 있으나 이것은 관광과 써비스업의 發達과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에 의한 農業人口가 반드시 흡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濟州道の 産業政策과 제주도 綜合開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食糧作物과 特用作物 栽培面積이 減少함에 따라 이들 作物들과 代替시킬수 있는 수익성 높은 作物을 빨리 開發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며 衰退型作物의 作付體系에서 成長作物의 作付體系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즉 서류, 맥류, 유채 등의 재배를 줄여 나가고 화훼, 채소, 과수 등의 栽培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多角經營을 통한 土地利用率을 높여 農業所得을 가능한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濟州道 地域農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柑橘의 價格安定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濟州道 地域農業의 死活은 柑橘價格이 적정선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柑橘價格의 安定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加工率을 30% 이상 올려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제품의 開發과 가공제품의 需要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맛있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품종 갱신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고 中만생품종 위주에서 품종별 균형있는 생산을 도모해야하며 道當局의 柑橘價格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시행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柑橘組合의 役割이 미흡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 柑橘組合의 經營合理化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감귤농가는 年1회의 수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좋은 자연적 조건을 이용하고 多用經營을 통하여, 즉 감귤과원중 일부에 자본회전이 빠른 양돈, 양계, 거울딸기, 고급채소, 화훼, 시설원예 등을 병행하여 年間 몇차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農業所得을 최대로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花卉와 시설원예 栽培가 빠르게 증가하는 實情에 비추어 이를 지원하는 기술교육과 금융지원이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기술교육과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濟州道에서 재배되는 花卉類중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종 하나를 선별하여 이를 特化시켜 수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고 제주도 근교에 식물원을 설립하여 제주도의 모든 화훼류를 모아서 재배도 하고 전시하면서 관광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7) 濟州道の 토양과 지형 등 諸搬與件을 고려하여 濟州道 地域農業을 몇개 生産團地로 特化시키고 이를 중점 육성하여 다른 地域의 農產物과 價格 및 品質面에서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8) 채소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으나 價格의 폭등과 폭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채소농가에 심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채소 가격을 安定시키기 위해서 계획생산과 아울러 流通構造의 改善이 요망되고 있으며 他地域의 主産地와의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시장정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1. 姜 志 勇, 「濟州道 地域農業의 立地區分과 展開方向에 關한 研究」, 高 大 碩 士 學 位 論 文, 1980
2. 京 鄉 新 聞 社, 思 想 과 政 策, 1985, 봄호
3. 經 濟 企 劃 院, 經 濟 指 標, 1987.
4. 高 麗 大 學 校 經 濟 研 究 所, 地 域 經 濟 發 展 패턴과 濟州道의 產 業 開 發 展 望, 1985.
5. 農 水 產 部, 農 林 統 計 年 報, 1961~1987.
6. 農 漁 村 開 發 公 社, 花 卉 產 業 育 成 方 案, 1984.
7. 農 業 協 同 組 合 中 央 會, 農 協 調 查 月 報, 1970~1987.
8. —————, 農 協 의 地 域 農 業 綜 合 開 發 方 向, 1984.
9. 文 人 龍, 農 業 經 濟 學, 先 進 文 化 社, 1985.
10. 朴 東 昂, 農 業 經 濟, 法 文 社, 1978.
11. 宋 丙 洛, 韓 國 經 濟 論, 博 英 社, 1984.
12. 李 碩 崙, 經 濟 發 展 論, 法 文 社, 1986.
13. 全 太 甲, 農 業 經 濟 學, 1985.
14. 朱 奉 圭, 農 業 經 濟 理 論, 先 進 文 化 社, 1980.
15. 濟 州 道, 濟 州 道 統 計 年 報, 1961~1987.
16. —————, 主 要 行 政 總 覽, 1988.
17. 濟 州 大 學 校 社 會 開 發 研 究 所, 社 會 開 發 研 究, 1. 2
18. —————, 地 域 發 展 의 方 向 과 課 題, 1985.
19. —————, 濟 州 道 花 卉 農 業 振 興 方 案 에 關 한 研 究, 1986.
20. 韓 國 銀 行 濟 州 支 點, 濟 州 經 濟 의 實 態 와 展 望, 1978.
21. 韓 國 農 村 經 濟 研 究 院, 農 村 經 濟, 7(4).
22. Hallet,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Policy, England, 1981.
23.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 England, 1978.

Summary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and Development of Cheju Regional Agriculture

Cheju regional agriculture, based upon dry-field farming for food supply, was self-sufficient until the early 60's, but it has changed into commercial agriculture that pursues profits based on farming for cash crops, tangerines and facility plants, together with the five-year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Cheju regional agriculture that utilizes the advantages of the natural conditions is suffering heavily from free import, especially in the fields of cash crops and facility plants. Tangerine agriculture is also held in check for increases in quantity and for defectiveness of several given conditions.

The structure of cheju regional agriculture is formed to pursue profits or increase income. Accordingly the plans to solve the problems of cheju regional agriculture and to help increase income are as follows.

1. Posi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needed to help scientize and mechanize farming against the continuous decrease of farming population.
2. Facility hort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must be supported for the farmers to make maximum profits, against the decrease of field and cash crops farming. In addition, a vegetable-flower union is needed to maintain steady prices of vegetables, and for planned production and market information.
3. Tangerine farming, which takes up the large part of cheju regional agriculture, must be managed reasonably through improvement of plants and control of production, and by increasing the demand of tangerines through development of processed goods.
4. Positive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 must be given to activation of flowers and facility horticulture throug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